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마음을 배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고난 받는 이웃을 돌보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b

고난으로 담금질해 사랑을 전하라!

‘2019 고난주간 맞아 그 의미와 명화(“이 사람을 보라”) 통해 크리스천의 자세 소개

사순절의 절정에 이른 고난주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개인의 경건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와 고통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고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경건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주간 중에는 종려주일, 세주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등이 포함돼 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이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축청, 감람산 강화, 성만찬 제정, 겐세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와 심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그야말로 예수 공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과 전 우주적 사건이기도 했던 대사건들이 숨 막히게 전개됐다. 이에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응축적으로 담겨있는 이 주간의 각 요일마다 그 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엄숙한 절기로 보내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의로운 인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태초부터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구속주가 당하신 전 우주적 고난이었다.

성경에는 패러독스(paradox)가 있다. 패러독스는 겉으로는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진실을 파고들면 그 안에 진정하고도 깊은 의미가 스며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자기를 죽이면 살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런데 패러독스는 성경에서 신앙인들을 보다 깊은 영적 의미로 안내하는 계단이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깊고 깊은 역설을 함축하고 있다.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건이다. 고난은 사람을 괴롭히고 실망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 고난을 안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는가.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 고통과 고난이 도처에 사나운 맹수처럼 도사리고 있어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준비하도록 말씀하는가. 고난이 없는 인생인가,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는 인생인가?

성경은 고난을 역설로 배우라고 가르치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사119:67). “고난당한 것



안토니오 치세르가 그린 명화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고난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은 참으로 신비한 영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난에 절정과 극치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사가 선지자가 이를 극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사가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이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맺는 허망한 연극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우주적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고난과 역경이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그 사람이 지닌 역량은 역경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고뇌하게 한다.

(3면으로 계속)



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건, 명문대 “엿문” 있다!

뉴스위크, 불법 입학사건...대 이어 부/명망 이루려는 부자들의 부끄러운 민낯 소개

지난 3월 12일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 입시비리가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 충격파는 입시준비 업체와 표준시험 관리기관부터 대학 체육코치, 할리우드, 실리콘밸리, 아이비리그, 대입 관리기관까지 모든 곳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예일대학·스탠퍼드대학·캘리포니아대학(LA캘퍼스) 등 미국 명문대학에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데 관련한 혐의로 입시 컨설턴트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5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대학입학을 둘러싼 만연한 뇌물과 대리시험 등 각종 속임수와 돈세탁이 적발되면서 새로운 의혹과 소문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 보도와 수치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을 정리해 본다 (COLLEGE ADMISSIONS SCANDAL 2019: EVERYTHING WE KNOW).

입시 컨설턴트,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50명 기소 특별시험장에서 SAT, ACT 치르는데 7만5천달러

수험생이 입학 요건에 맞는 자격과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앞문'이 있다면, 그런 실력과 자격

이 없었을 경우 부자 부모를 둔 수험생에겐 '뒷문'이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16면 인/터/뷰 이영주 교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종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RN to BSN) 개설”

2019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8월 26일 개강

- 18개월 과정
- 자격 : RN 라이선스 소지자 (Visa screen시 영어 점수 면제)
- 학비 : 18개월 \$12,000 (분납 가능)
- I-20 발행 (졸업 후 OPT 가능)
- ABHE 인가

- 학생중심 학습 : 교수와 학생 1:1 멘토 시스템
- 온캠퍼스 및 온라인 교육
- 우수한 교수진 : Evidence-base 교육
- 미 정부 Financial Aid 및 학비 융자 가능 (유자격자)

6월 30일 이전 등록시 입학금 (\$300) 면제

문의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ww.wmu.edu
Tel : (213) 388-1000 • E-mail : info@wmu.edu

* 본 대학 입학시 교양학, 신학 학점이 미비한 경우 추가로 이수해야함



● 발행인 칼럼 ●

상처더미 거름더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상처는 아프다. 버겁다. 두고두고 문제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가벼운 흠집 정도가 아니다. 상처더미라 할 정도로 많고 크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악취가 난다. 그렇다고 상처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영롱한 진주는 상처 입은 조개에서 만들어진다.

요엘서 2장에 보면 군대 같은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는다. 그것들이 죽어 악취를 낸다. 이제 먹을 풀이 없고 과실이 없으니 짐승도 죽게 되었고 사람도 큰 문제가 된 것이다. 거기에 놀라운 반전(反轉)이 일어난다. 죽어 악취를 풍기는 메뚜기 떼가 좋은 거름으로 변한 것이다. 땅에 거름이 가득하니 질망의 땅이 풀이 나고 열매를 맺는 양질(良質) 땅이 된 것이다. 상처더미, 악취더미가 좋은 것을 꽃피우는 거름더미가 된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 묻힌 무덤 앞으로 가셨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셨다. 그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다. “주여 죽은 자가 나옵니다. 죽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옵니다.” 사실이다. 팔레스틴 땅에서 사람이 죽어 나옵니다. 죽었다면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무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냄새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돌문을 열라고 하셨다. 오래된 상처의 냄새를 덮어둔다고 능사(能事)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다말은 상처의 여인이었다. 남편 엘이 죽었다. 엘이 누구인가. 유다의 아들이다. 야곱의 손자이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다. 엘의 동생 오난은 형수였던 다말을 아내로 취하게 된다. 오난의 어이없는 행동은 다말로 임신치 못하게 하였다. 이 슬픔의 여인은 오난의 동생 셀라와 더불어 자녀를 가져야 했으나 셀라는 너무 어려다. 다말은 친정으로 물러가 있어야 했다. 이 무슨 수처인가. 이 얼마나 큰 상처인가. 다말은 하마터면 상처더미 가운데 그 인생을 끝낼 뻔했다. 그는 상처를 가지고 수세적(守勢的) 자리에서 있었다가 공격적(攻勢的) 위치로 옮겨갔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갖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두었다. 그가 상처에 신음하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상처를 드러내며 분연(奮然)이 일어섰을 때 더 이상 상처의 여인이 아니라 축복의 여인이 된 것이다.

사람마다 어렸을 적부터 상처가 무수하다. 어린 때까지의 상처가 범벅되어 냄새, 악취가 난다. 그대로 덮어둘 것인가. 예수님은 열라고 말씀하신다. “상처를 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나도 있었다. 너와 같은 상처가.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의 상처를 보고 이해하시고 위로만 하실 분이 아니시다. 상처더미를 거름더미로 만들어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 열매 맺는 일, 그리하여 마침내 상처의 악취를 향기(香氣)로 만들어 가시는 전문가(專門家) 이시다. 그분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시지 않은가.

외로운 노인들, 흠치거나 자살한다!

BBC, 초고령 사회 일본 노인들 경범죄 재발률 자살률 상승 집중 취재

'초고령 사회' 일본이 노인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5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 비율은 최근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한마디로, 일본 노인들이 스스로 '절창 안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궁극증을 BBC 방송은 실제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한 노인들을 만나 물었다(Why some Japanese pensioners want to go to jail?).

사회복지시설에서 만난 도시오 타카타(69)는 가난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했다. 감옥에 있다 해도 무상으로 살 곳을 원했다.

“연금 수령 연령이 됐지만 골돈이 바닥났습니다. 감옥에 가면 돈이 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이걸 훔쳐어요'라고 말했어요.”

당시 62세였던 도시오의 첫 범죄였지만, 일본 법원은 단순한 절도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왜소한 체구에 인터뷰 내내



뉴먼은 노인 자살이 흔해지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자살은 이들이 고달픈 삶에서 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오 타카타가 속한 사회복지센터의 센터장도 일본 가족 구성 변화가 노년 범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금전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 결과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야마나 가나치(85)는 “대단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이 사회에서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한다”라고 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 중

“연금수령으로 생활 안 된다” 범죄하고 감옥으로 65세 이상 범죄율 20년새 4배 가난은 표면적 분석, ‘외로움이 더 크다’ 시각도

너털웃음을 짓던 도시오는 상습적인 범죄자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누군가를 칼로 위협할 것 같은 사람도 아닌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출소하자마자 공원으로 가서 사람들을 앞에서 칼을 꺼냈다.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경찰을 부르기를 바라면서 칼을 보인 겁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죠.” 결국 4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그에게 감옥에서 지내기가 좋은지 물었다. 대답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없어도 살 수 있다”였다. 감옥에 있어도 노인 연금이 나온다고 했다. 도시오는 “나갈 때 즈음, 돈을 약간 저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았다고”라고 답했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일본 사회에서 독특한 사례가 아니다. 법 준수사회인 일본에서 65세 이상 범죄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 연령대가 저지른 범죄 비율은 유죄판결 2건 중 1건에 불과했지만, 20년 후 그 수치는 5건 중 1건으로 증가했다. 노인인구 팽창 속도보다 더

빠른 추세다. 도시오처럼 노인 범법자중 대다수가 재범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2500명(65세 이상) 중 1/3 이상이 과거 5년 이상 범법행위를 했다.

70세 케이코(가명) 역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빈곤에 쪼들 삶일 뿐이라고 했다. “저는 남편과 잘 지내지 못했어요. 살 곳도 없었고 머무를 곳도 없었어요. 절도라는 선택 밖에는 없었지요.” 그는 이어 “제대로 견지 못하는 80대 할머니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배고프고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코와 인터뷰는 몇달전 진행했지만 그 이후 그는 절도 혐의로 다시 체포됐고,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노인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인데 대부분 마트 물건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게에서 3000엔 이하(약28달러)의 물건을 주로 훔친다.

가연금으로는 살기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집세, 식비, 의료비를 계산해보면 일본에서 노인 연금 외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빚을 지게 된다는 결론을 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했지만 특히나 지방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부모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가 많다.

뉴먼은 “연금 수급자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연금으로 살 순 없지만 집이 되지 않는 방법은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하루에 세끼의 식사가 나오고 각종 청구서에 허덕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수가 삶에 이런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지요. 아내나 아이를 잃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야마다 카니치는 가난 때문에 범죄로 몰리는 것은 표면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로움’이다. 그는 도시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요인은 감옥에서의 ‘집단’ 생활 이라고 추측했다.

이 세상에서 도시오가 혼자인 점은 맞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가 둘 있지만 도시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 이혼한 전처 2명과 세 자녀가 있지만 모두 연락이 안된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 - 4645 / Fax: (636)327 - 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571)730 - 4750 / Fax: (571)730 - 4751
E-mail: wde@midwest.edu

고난으로 담금질해 사랑을 전하라!

(1면에서 계속)

독일의 문호 괴테 역시 '고난이 있을 때 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고 원만히 견딜 수만 있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삶에 있어 독이 아니라 특이하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내재적 가치다.

인생이란 긴 여로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관은 그런 의미에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과 극복의 대상이며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축복이다. 고난으로 자신을 담금질한 사람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삶의 무늬를 갖게 된다.

성경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려낸 화가가 있다. 스위스 출신으로 인상주의가 유행했던 19세기 말에 성화를 그린 사람 안토니오 치세르(Antonio Ciseri, 1821-1891)다.

그의 작품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그린 장면이다.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지난밤 흉몽으로 인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한다. 빌라도는 마음이 다급해져 절박한 심정이 됐다. 급기야 그는 유대 군중을 향해 팔을 벌려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며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장면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찍어 화폭에 담은 주인공이 안토니오 치세르다. 그는 라파엘로 화풍을 이어받아 사진보다 더 섬세하고 매끄러운 초상화들을 그렸다.

이 작품에서 거대한 로마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 아무런 저항할 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서있는 예수님을 묘사했다. 그 앞에 빌라도는 금빛의 화려한 로마귀족 옷인 토가를 걸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

의 정당함과 결백함을 맹세하듯 한 쪽 손을 들어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힘과 승리의 상징인 빌라도 앞에 대조적으로 힘없이 초연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그려놓았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그동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듯 한 단호한 표정이다.

예수님 뒤에는 창과 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로마병사와 그들의 반대편엔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네들이 있다. 그들은 강한 권력과 무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 (빌라도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환호했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핏대를 울리며 외치고 있다. 빌라도의 오른쪽에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바리사가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있는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의 배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강력한 로마제국 수도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과 빌라도를 더욱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마치 당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한 섬세함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서 있는가? 유대 군중 속에 있는가? 아니면 여인들과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서 우유부단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군중에 이끌리듯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고개 숙인 자일 수 있다.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라고 외치는 소리에서 거대한 로마제국의 힘이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결론으로, 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의 대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고난주간을 온전하고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인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심어는 30년 가까이 임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대학 체육코치 등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시험을 알선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술한 부유층 자녀를 명문대에 들여보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그가 지난 8년 동안 대학 체육코치와 직원들, 입학시험 관계자를 매수하기 위해 자신의 가짜 재단을 통해 건넨 뇌물은 무려 25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심어는 부유층 자녀인 수험생의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미리 매수한 감독관들이 있는 휴스턴과 로스앤젤레스의 특별 시험장에서 SAT와 ACT를 치르도록 했다. 뇌물을 받은 감독관이 수험생의 답안지를 고쳐 원하는 성적을 받도록 해 준 것이다.

(4면으로 계속)

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건, 명문대 "옆문" 있다!

(1면에서 계속)

부모가 대학에 거액을 기부하거나 캠퍼스 건물 건설에 막대한 기여를 함으로써 자녀를 대학에 들여보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옆문'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불법적인 입학에 가리킨다. 이번엔 밝혀진 임시버리의 핵심에는 그 '옆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컨설턴트 윌리엄 심어가 있다. 심어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임시 컨설팅업체 '에지칼리지&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허위로 '키파운데



이션(Key Foundation)'으로 불리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임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그럴 듯한 이름이 '옆문'을 여는 열쇠를 의미하는 듯하다.

시론

당신이 이곳에서 기도를 인도한다면?



최혜근 목사 (공교메리교회)

만일 당신이 국회를 시작하는 개원식에서 전체를 대표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3월 29일)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으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선서식과 함께 회기를 시작하면서 첫 개회기도를 스테파니(공화당) 의원이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원의원으로 처음 선출된 그녀가 기도를 인도한 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파니 의원은 1분43초 동안 기도를 인도하였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13회 사용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6회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회교출신 여성이 주 하원의원으로 취임하는 자리였는데 그 여성에게 스테파니가 드린 기도문이 회교신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 예컨대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기도 가운데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끝난 후 주하원의 분위기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 방식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회교성직자가 나와서 아랍어로 코란의 한 부분을 암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랍비가 히브리어로 기도를 인도한 적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나와서 히브리어로 기도를 했을 때는 영어로 통역 혹은 화면을 통해 그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반해 회교성직자가 나와서 코란의 한 부분을 암송할 때는 아랍어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상원과 하원 회의석상 혹은 공공모임에서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반적인 대답은 기도 인도자와 그 모임에 참석한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단어와 내용을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즉 '하나님=God' 혹은 '전능자=Almighty'와 같은 단어는 대부분의 종교가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Jesus'라는 단어보다는 대체적으로 덜 자극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피하면 무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호한 기도를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기도가 문제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정치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권당과 특정한 국가 및 개인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며 보편적으로 공기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객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공적인 기도를 인도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역사관 혹은 가치관을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모나고 깨어진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떤 당의 정책이나 방향을 언급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살롬.

thechoi82@yahoo.com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고난의유익" (시119:71)



4/15(월) 5:2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4/16(화) 5:20am
강사: 김경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



4/17(수) 5:20am
강사: 김기동 목사
(고구마전도당 / 소중교회 담임)



4/18(목) 5:20am
강사: 남성수 목사
(OC 한인교회 담임)



4/19(금) 5:20am
강사: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담임)



4/20(토) 6:00am
강사: 이서 목사
(미주비전교회 담임)

2019. 4. 15(월)~19(금) 새벽 5:20, 20(토) 새벽 6:00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4/19/8:00PM
성금요일 칸타타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상상의 능력은 위대하지만

생각에도 유행이 있는 것일까? 한때 '4차원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한국 기독교에 유행처럼 퍼진 적이 있었다. 적

극적인 사고는 꿈을 이룬다. 꿈을 꾸라, 꿈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 꿈은 비전으로... 비전은 믿음

의 실상이 된다고 했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도무지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실종된 세상같이 되어버렸다. 과연 꿈이나 비전이나 상상은 퇴색한 시대적인 유행처럼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인가? 과거에만 필요했고 현대와 미래에는 상상과 비전 같은 단어는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도 상상과 꿈과 비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꿈도 상상도 비전도 없어 보여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인생 성공의 비결은 상상의 능력 차이에서 결정된다. 하찮은 생각 하나, 영동한 상상 하나가 증기기관차를 만들었고, 공중을 나는 비행기의 단초가 되지 않았는가? 보름달을 보면서 예수나 부도개 타령하고 있을 때 서양인들은 달나라 착

륙을 상상하고 있었다. 상상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만크이나 차이가 난다. 인류 문명의 발전이 모두 다 생각에서 상상으로, 상상이 비전으로 연결될 때 향상되어 왔다. 한 형제들이 공중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새들을 보면서 사람도 날개만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상상을 시작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어낸 라이트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얘기이다. 상상은 현실을 미래로 이어가는 길목이다. 상상은 시뮬레이션 효과가 있다.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어 독방에 7년을 갇혔던 미군 병사가 매일 상상으로 골프를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석방되어 나온 후 곧바로 프로골퍼가 될 수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상상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상상은 창조의 씨앗이다.

상상이 소설가 조엔 톨링을 만날 때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왔고, 상상이 피카소의 손에서 추상 걸작들을 쏟아냈다. 미켈란젤로를 만났을 때 피에타, 다비드의 살아 있는 대리석 명품들이 나왔다. 탐험가 콜롬버스를 만났을 때 아메리카 대륙이 나타났고, 찰스 베비지를 만났을 때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를 만났을 때는 셀폰이 되었고, 상상이 외과 의사 손에서 는 복강경 수술로 간편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그 상상은 초현실을 넘어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D 프린터의 발명으로 모터사이클도 만들고, 사람의 신장암 수술도 성공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마쳤다고 한다. 사람의 장기부품도 개발하고 있는데 대체 앞으로의 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공할만한 염려가 앞선다.

상상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다. 그런데 이 상상이 비뚤어진 사람 속에 들어가면 세상은 비극과 혼돈과 자멸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상상이 비뚤어진 집권자들을 만났을 때 히틀러의 악인 히틀러를 만들었다. 일탈의 사상가를 만났을 때 공포 사회를 만들고 무수한 인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현대인들의 상상이 기존질서와 체계를 모조리 초월해 버릴 것이다. 상상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인간 영혼 구원 영역은 결코 넘나 볼 수 없다. 구원은 상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에서 오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상상과 아이디어는 어디에도 결코 없다. 상상의 능력은 무한하나 복음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김양현 목사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광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택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조명해보며 영광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를 위한 삶을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24절(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하다'는 '인연을 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세속적 생각, 이기적 욕망, 부패한 옛 자아를 철저히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인간은 완

전히 부패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다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기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

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높이 드리는 일임과 동시에 주님께 인정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24절(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아래 살던 팔레스틴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짐이며,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메라는 참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뼈 속 깊이 이해했을 것이고 어쩌면 부담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현재와 장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짊어질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투와 억울함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 영광의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셋째, 주님 한분만 바라보며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24절(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 가도되고 안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가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계속 쫓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라도, 도처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야함을 교훈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길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노인들, 훔치거나 자살한다.

<2면에서 계속>

아내와 가족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마이클 뉴먼은 일본 정부가 교도소를 늘리고 여성 교도관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의료처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했다. 노인 여성 범죄자의 수는 비록 낮은 편이지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교도소의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도쿄 외곽 지역 후쿠 소재 한 교도소 상황으로 보듯 현재 수감자 3분의 1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일본 교도소 풍경도 바뀌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 행진하고 소리치는 일도 있었지만 군사 훈련 같은 부분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날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수감자 2명이 훈련을 따라잡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중 1명은 목발을 짊고 있었다.

야자와 마사쓰구 교도소장은 "시설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교도소는 핸드레일과 특수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인 재소자용 수업도 마련했다.

한 음악 수업을 참관했다. '내가 태어난 이유'라는 노래가 노래방 반주에서 흘러나왔다. 모두 삶의 의미를 담은 노래다. 재소자들은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이중 일부는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다.

야자와 교도소장은 "우리는 이들에게 실생활은 감옥 밖에서 영위해야하고, 행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노인 재소자들은 감옥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이클 뉴먼은 범원절차와 수감비용을 들이지 않고 노인들을 돌보는 편이 훨씬 더 낫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노인연금 수령액 절반을 줄이는 대신 무료 음식과 건강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주민들과 가라오케나 게이 트볼을 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엔퇴마을'을 구상했다. 현재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미한 절도죄에도

구류형을 내리는 일본 범원 관행이 적합한 처벌인지는 약간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6년 보고서에서 200엔(2달러) 샌드위치를 훔쳐서 2년형을 선고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840만엔(84만달러)에 이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런 노인 범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노인에게 도둑질은 두 번째였는데 3월30일의 후추병을 훔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일본 소매상 3,000여 곳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리모치즈키는 범원이 좀더 독들을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교도국 마사유키 쇼는 "뺨 한 조각을 훔쳐들라도 재판에서 감옥행이 적절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감한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서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다.

도시오 다카다에게 이 교훈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에게 다음 범죄를 계획하고 있냐고 묻자 도시오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곧 70세가 될 거고 늙고 쇠약해질 테니까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어요."

미국판 스키캐슬 사건, 명문대 "옆문" 있다.

<3면에서 계속>

법원에 제출된 수사 자료를 보면 실어는 수험생이 학습장애자를 위한 특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ACT는 30점대, SAT는 1400점대를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ACT의 만점은 36점이고, SAT의 만점은 1600점이다. 그 대가로 학부모가 낸 돈은 7만5000달러였다.

NYT는 실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했다. "비유하자면 대학 입학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다. '앞문'은 학생이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뒷문'은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거액을 대학에 기부하고 입학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 두 문을 통한 입학은 전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입학을 완벽하게 보증하는 '옆문'을 만들었다. 것처럼 '완전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가정이 '옆문'에 매력을 느꼈다."

특히 명문대학 체육코치들이 거액을 받고 유명인사 자녀들을 체육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NYT는 입시 뇌물과 관련된

대학 스포츠 코치들이 파면되거나 징직됐다고 전했다. "스텐포드대학은 지난 3월 12일 요트 코치 존 벤티모어를 해직했다고 밝혔다. 텍사스대학(오스틴 캠퍼스)은 남자 테니스팀 코치 마이클 센터가 징직처분을 받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선 육상팀의 도나 하이넬 부감독과 조반 바비 폴로팀 코치가 파면 당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하이넬 부감독은 13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고 바비 코치는 25만 달러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되는 새너제이머큐리뉴스 신문은 실리온밸리가 있는 베이 지역 주민 여러 명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명대학 여자배구팀과 수구팀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뇌물을 준 사람도 있고, ACT 점수를 36점 만점에 34점으로 조작한 경우도 있으며, 운동 특기 수험생의 소속팀과 수상 경력을 지어내는 등 프로필이 조작된 경우도 발각됐다. 수험생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위조하거나,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진짜 운동선수의

사진에 수험생 얼굴을 합성하기까지 했다.

기소된 학부모 중에는 할리우드 배우도 두 명 포함됐다. ABC 방송 인기드라마 '위기의주부들'에 출연한 켈리시티 허프먼과 시트콤 '폴하우스'에 나온 로리 러프린이다. 허프먼은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그녀의 변호사는 "허프먼은 이 문제 때문에 일시적 국제적인 도망자가 될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폭스 뉴스에 말했다.

러프린은 패션 디자이너인 남편과 함께 두 딸을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조정팀에 넣어주는 대가로 입시 브로커에게 잔조금으로 가장한 사례금 5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러프린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브로커에게 발송된 이메일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 들어간 러프린의 딸 올리비아 제이드 지어놀리는 유튜브브와 인스타그램에 수백만 명의 구독자와 팔로워가 있는 소셜미디어 스타라도 유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이녀석을 따 OJ로 알려진 그녀는 대학입학 체헝기와 일상생활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큰 인기를 끌었다.

강도의 소굴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만연해가는 세상이다. 신앙을 말하는 신자들도 죄에 대한 감각들이 희미해져 간다. 세상의 타락에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잘못이 크다.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책망하셨다.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인가?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고도 자기 소굴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저들은 죄의 불편함을 잊어내고 편안함과 안식을 느낄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와 잘못들에 대해, 마땅히 예배를 통해 교

하며 살아야 될 신앙인에게 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

오늘날은 인공지능의 발달을 포함하여 편리함의 첨단을 살다보니 도무지 삶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불편함을 인내와 기쁨으로 지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불편하다 싶으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돌아선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것을 배려

되었으니, 더 들을 게 없다는 것이다.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고, 계시의 말씀을 목회자의 의견처럼 듣는 저들로 인해 결국 교회는 늘 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된 것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이해와 관용을 배워주기보다는 빠지고 토라지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며 사나워진다. 자기 영혼을 다스리며 성숙시키지 못한 그 거친 형상들이 무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는 것이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

교회생활에 익숙한 것을 마치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교회생활 몇 년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중요한 훈장이 된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한 채, 터줏대감처럼 교회생활의 편안함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유해할 따름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보장하고자 애를 쓴다. 교회가 세상의 현실을 따라가고 성도를 소비처럼 저들의 요구에 타협하는 것으로 쉽게 무장해제한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와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마땅히 감당할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종교를 원하는 시대

-세상의 각성, 교회의 회복

정시키고 책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에서 범한 죄에 대해 그 죄를 씻음으로 얻고 누리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무관한 편안함과 만족만을 주고자 열심이다. 과연 주님이 지금의 교회들을 보시며 뭐라고 하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죄를 죄로 감각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에 치명적이다. 말씀과 성령에 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편안함과 익숙함은 마치 따뜻한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영혼을 서서히 감각 없이 병들어 죽게 한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익숙함이라는 관성의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 익숙함이란,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 편안함을 말한다. 익숙한 것은 언뜻 좋아 보인다. 그러나 세상의 일과 기술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늘 깨어 있어 한밤중에라도 주님 만날 것을 예비

한다. 당연한 섬김의 과정이었지만 실제 그 열매들을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도록 과보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다.

설교, 성경공부, 구역모임, 봉사활동 등 모든 것에서 가급적 불편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자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다. 마치 자기 돈을 들고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사는 것처럼 교회생활과 예배생활을 한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조금 더 현금을 해서, 유급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고 자신들은 그들의 봉사를 통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는 3년마다 목회자가 바뀌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3년 들었으면 웬만큼 다 들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설교의 흐름이나 논리를 알게

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교회를 망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호호호를 따라 적응하지 못한 영혼들은 또 다른 자신을 편안하게 해 줄 곳을 찾아 발길을 옮긴다.

주일날 대형교회 근처의 커피숍에 성경책을 펼친 이들이 점차 늘어난다고 한다. 교회의 그 딱딱한 장의자, 지루해 보이는 순서들, 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들, 봉사와 헌신의 부담스러움,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간섭도 없고, 봉사의 부담도 없는 미국교회를 통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한다. 더 심한 사람들은 아예 공적인 교회생활을 포기하기도 한다.

익숙한 성도, 불편한 교회

헌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며, 자신뿐 아니라 성도의 고통스런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배움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이를 듣지 못하면 어디서 들을 것인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 가도록 외치지 않으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인가? 괜찮다고 말한다. 때가 되어 은혜가 되면 깨달을 날이 온다고 항변한다. 몸은 썩어 가는데 약간의 피부약을 발라주는 격이다. 영적인 억압과 세상의 억압과 죄의 억압이 커져 점점 타락되어 감에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 나아가고 있다.

진짜 위기는 이러한 세상의 편리함에 동조하며 세상과 구별 없는 교회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다.

(10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시애틀의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자입니다. 3가지를 질문합니다. 목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요? 2)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옳고 바른지요? 영광 드리다가 맞지 않을까요? 3)성경과 성서를 분별없이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어느 것이 맞는지요?

-시애틀에서 Park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 1의 개인적인 만남(Personal encounter)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간 사람은 자신이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나 제3자의 개입 없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

①하나님과 1대1 개인적 만남 필수 ②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는 옳은 표현 ③성경이라고 해야

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지). 둘째는 죄인인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정). 셋째는 내 마음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의). 그러므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격체인 그 분과 영적조우(遭遇)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표현이 올바른지를 질문하셨 습니다. 일단은 "영광을 돌리다"라는 표현은 이미 한글성경에 표현되었 습니다. 영어적 표현은 "To God be the glory"입니다. 그 뜻의 직역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5:1절을 보면 여호와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주의 이름에 돌리소서(not to us, O Lord,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라고 구약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16절에도 보면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Praise your Father in heaven)"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제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어지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praise)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exalt)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The Bible)이지 성서(holy book)란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성서는 성경이 아니어도 거룩한 책으로 소위 이슬람경전이나 외경들도 거룩한 경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란 표현이 옳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에 소속된 캘리포니아 북가주 산호세에 위치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자체 성전과 교육관을 갖춰 한인 성인예배 EM(영어권 예배)이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40년동안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사명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으로 제 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으신 분으로 목양의 열정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며 행동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실 분.
- 2.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이 가능하신 분.
- 3. 목사안수 후 5년이상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로 헌신하신 분.
- 4. 미국내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구비서류

- 1.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성장배경, 신앙간증, 소명,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 3. 학위증명서 (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서)
- 4. 목회자 2인의 추천서 (확인 할 수 있는 전화 및 e-mail 주소 기입)
- 5. 최근 설교 2개 (CD/DVD 또는 동영상주소)

접수마감 : 2019년 5월 31일

제출처

- e-mail이나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청빙위원회 e-mail : yesokpositive@gmail.com
- 보내실 곳 :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Attn : 청빙위원회)**
-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 문의 : 청빙위원회 정천의 장로 (Tel 408-262-0177)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www.svkpc.org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는 해외 장기 선교사로 파송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습니다.

가. 모집기간: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5월 31일(금)
(당일 도착하신 분까지 받습니다.)

나. 모집대상:

- 1.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 선교사로 준비 중이신 분
- 2. 일정기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교회가 준비한 선교 교육과 훈련을 신실하게 이수하실 수 있는 분
- 3. 5년 이상 장기간 선교사로 헌신 가능하신 분

다. 파송 예정 지역: 추후 협의

라. 사역: 팀 선교를 통해 현지 지도자 양성에 비전이 있으신 분

마. 지원서류:

- 1. 이력서(사진 부착,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별도의 가족사진)
- 2. 자기소개서(자기소개 및 선교 소명에 관한 항목을 필히 기개)
- 3. 신앙고백서
- 4. 선교 사역 계획서(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계획서 포함)
- 5. 추천서2통(현 담임목사, 전 현직 선교사 각 1통)

바. 접수: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선교위원회

사. 문의: 교회 사무실(TEL: 714-893-1652)

- * 서류 접수만 받습니다.
- * 보내주신 서류는 반송되지 않습니다.
- *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 여부는 전화로 개별 통지 합니다.

카타리파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다양한 장식물이 등장한다. 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무엇보다 아기에 수 탄생과 관계된 마구간 전시물에 가장 큰 관심은 가질 것이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 옆에 서 있는 요셉, 그리고 말구유와 몇 마리의 동물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발견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물론 그 전시물 자체를 신성시 하거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 단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이런 전통이 생겨났는지를 알게 된다면 마구간 전시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남프랑스와 북이탈리아, 그리고 저지대와 라인란트에서 활동한 이단 종파 중 하나인 카타리파(Cathars)를 소개하려 한다. 카타리라는 헬라어의 뜻은 "순수함"이다. 이들을 알비파(Albigense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분파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프랑스 남부 도시 알비(Albi)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초기부터 카타리파를 매우 심각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마구간 전시물 자체가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타리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인간의 육체 자체를 악한 신의 창조물로 여기는 교리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이 확산되면서 그리스도 탄생의 지닌 의미가 기록되지 되었다. 이로써 마구간 전시물을 만들어 시청각교육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육체적 탄생을 역사적 사실임을 믿도록 하게 한 것이다.

위험한 도전장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그들은 초대교회가 출범한 이후 교회를 도전하던 이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녔던 만큼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이미 부를 축적하고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가난과 청렴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범적인 삶이 대중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12세기 초반부터 청빈한 삶을 살면서 설교하던 자들의 입술로부터 교회를 향한 쏜 소리가 찾아졌다. 교황과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의 탐욕스런 삶에 대한 도전이 이뤄질수록 그들을 향한 반항심이 생겼다. 그들은 이단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신학적 오류를 지닌 자들로 간주할 수 없었다. 도리어 자신들을 향해 무모한 도전장을 던지는 위험한 단체로 규정하였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1209년에 결성되어 1229년까지 활동한 '알비 십자군'을 통해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십자군운동은 서방교회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교황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갖게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된 물질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선명하게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근거하여, 물질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육신과 세속 세계를 만든 것은 천상의 존재였다가 타락한 사탄이다.

결국 카타리파의 이원론은 전통신

앙다는 것이다. 성관계를 사탄의 작용이라고 이해하였고, 그 결과로 낳은 자식이 이 세상에 탄생한 순간부터 육체에 간하는 운명을 놓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성적 금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마구간 전시물과 관계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유도 결국 카타리파의 이원론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마리아로부터 받은 육체를 악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정착한 지방의 형편에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는데, 영주들이 반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그들의 신학 사상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던 영주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들을 억압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아예 카타리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던 영주들도 제법 있었는데, 이런 지방에서는 가톨릭 사제들과 신학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카타리파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침묵할 수 없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그들의 신학사상 때문이었다. 창조주에 대한 부정과 함께 구약을 거부하는 행위, 자유의지와 원죄를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행위 모두 전통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 나아가서 그들의 교리가 종말론을 거부하고 일종의 유희설을 추구하면서 비성경적인 금욕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위험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가톨릭교회가 카타리파의 확산을 중단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이유 이상이었다. 그들이 주된 관심은 이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던 자신들의 위치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중세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을 통해 하향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에 맞서 카타리파의 교리가 악한 물질세계를 초월하여 천상의 신과의 합일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였기에, 교회의 권력과 교회를 통한 구원에 대한 주장을 거부하였다. 어떤 사례라도 타락하면 그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카타리파의 주장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대단한 도전이었음에 분명하다.

나아가서, 카타리파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다면 7성사 중 성체성사, 물세례, 나아가서 십자가 경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그들의 수입원을 보장했던 성사와 성인숭배, 그리고 연옥 등에 지대한 영향을 불러온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순수 교리보존을 위한 노력 이외에 작용한 숨은 원인들이 로마가톨릭교회를 매우 잔인하게 만든 것이다. 당시 개혁자 칼빈은 카타리파가 그 당시 로마가톨릭교회의 타락을 지적하고 청렴한 삶을 주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분리하고 떠난 것은 광적인 자만심과 잘못된 열정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이 시대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귀한 교훈이 있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3)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노센트 3세(Innocent III, 1161 - 1216)는 카타리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십자군을 결성하여 이들을 토벌하라는 명령과 함께 출정시켰다. 그 당시 느슨하면서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놓을 만한 조직력을 지녔던 카타리파는 사투를 벌이며 저항하였다. 그러나 십자군은 졸속 종교재판을 통해 수십만 명을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이단의 출현에 대하여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카타리파의 신학사상 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내용이 다

학의 여러 부분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기록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약성경 자체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신은 악한 신이며, 그를 대변하는 선지자 또는 그 시대에 나타난 기적을 부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인간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증거라고 규정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약은 좋은 신의 주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받아들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이단성은 결국 구약의 핵심

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유산인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였다.

카타리파는 자신들의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안전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신자들'로 구분하였다. 완전한 자들이란 정직하며 금욕과 독신, 나아가서 채식주의를 통해 구원을 담당하는 책임을 진 자들이었다. 일반신자들은 완전한 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콘솔라멘툼(consolamentum)이라고 불렀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었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에 도전한 카타리파의 청렴성 호소 이단 신학사상 반대 속에 숨은 기독교 보존 의도 간파해야

분하였다. 그들의 신학사상이 누룩과 같이 퍼져 물들게 하지 못하려는 시도였다.

카타리파의 이원론

카타리파의 신학사상의 근본은 이원론이다. 그 중심에는 선과 악, 정신과 물질, 영과 육, 천상과 세속 등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 뿌리에는 악한 신과 좋은 신에 대한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원론은 영지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였으며 이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커다란 골칫거리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두 종류의 신, 즉 악한 신과 좋은 신의 대조는 세상을

교리인 원죄의 개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악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카타리파는 자신들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원죄 자체를 부정한다. 원래 구약시대는 악한 신에게 속하였다는 것일지, 이로써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닐 수 있었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악한 신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악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결론이다.

흥미로운 것은 카타리파가 원죄를 부정하고 육신 자체가 부정하다고 보

는 뜻으로, 견진성사와 버금가는 의식이였다.

카타리파에 대한 대응

카타리파의 이단교리가 확산되었다. 대중이 그들의 교리를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 그 당시 이미 로마가톨릭교회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는 자들의 수가 증가된 것이다. 또한 카타리파가 이미 교회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체제가 굳혀진 곳에서는 심한 도전을 받았으나, 정치세력이 파편화된 지방에서는 쉽게 자리를 잡아갔다.

카타리파는 기본적인 사상을 공유하였지만 크게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여성순복음교회, 여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한인교회, 복음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세계소망교회, 요셉선교회, 엘바인침례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존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성경도 신앙(75)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그리스도인의 전쟁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가)행정부의 기능이다
무엇보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 선전포고 여부의 결정은 행정부가 가진 기능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여겨야 하며 국가가 가진 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행정부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정관을 세우신 것이다. 그 사람은 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주기 위해 세운 일꾼이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행정부 또는 국가가 어떤 악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데까지 나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형 판결이 그런 것이다.
행정관이 국가 안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

전쟁은 마지막 선택... 국가는 결정의 정당한 사유 보여줘야
극단적 호전주의/평화주의 경계... 참여여부 국가가 존중해야

켜야 하듯이 국가의 외적인 관계에 대해서 역시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행정관 역할들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롬 13:4).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벌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밖에서 다른 국가가 그 국가의 생활을 해롭게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면, 그 국가의 시민들의 유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나)최종선택으로서의 전쟁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전쟁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른 모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여야 한다. 국가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최선을 시도했는데도 실패하였을 때만 국가는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다)행정부의 확장된 의무로서의 감당할 일이다
국가가 전쟁을 감당해야 할 경우, 국가는 그런 결정이 정당한 사유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결정은 행정부가 가진 확장된 의무이다. 국가 내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기관이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의명분이 항상 정당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폭군이나 독재자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은 하지 않고 직무를 남용하여 스스로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일 경우에 그 정부를 바꾸기 위해

반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다. 같은 원리가 여기서 정확히 적용된다. 만일 우리가 속한 국가가 의로운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면 전제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어떤 형태의 호전주의 어떤 형태의 제국주의나 다른 나라 백성들을 희생하여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의도된 어떤 이기적인 전쟁을 예외없이 분명하게 정죄한다. 만일 몇몇 개인 통치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근거에서 히틀러(Hitler)나 무솔리니(Mussolini)를 정죄하는 것은 옳았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인들과 네덜란드의 보이족 사이에 금광 채굴 이권과 관련하여 사태가 악화되어 일어났던 보어 전쟁(Boer War, 1899-1902)의 경우, 이 전쟁의 시발 동기와 과정에서 보면,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남용하기도 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15:13). 그 본문은 전쟁에서 싸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군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도 일부터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분분들을 남용함으로써 참된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전쟁으로 나아가는 나라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나라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검증해 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일 그 전쟁이 전혀 그릇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전쟁에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런 정당성이 없는 전쟁은 부당하다. 그런데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성경 대목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 전쟁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잘못도 없었지만, 만일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그 는 그 전쟁에 나가 싸우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전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결과들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자기를 양심에 따라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존중해주어야 하는 무엇이다. 그래서 세계대전 때 양심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자의 입장을 항상 고려하여 입법을 하였다.

국가는 개인의 양심을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기같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전쟁을 반대하는 그 반전론자들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볼아야 한다.

모반이 일어날 때 경우도 같다. 만일 그 모반이 정당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모반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실례 가운데 하나는 16세기 재침례파(Anabaptist)의 경우이다. 그들은 국가와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세금 내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기도 했다. 그들의 생각에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한다는 생각 자체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단적인 생각이며, 그들의 반전론적인 관점은 그 이단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일반적으로 긍정적 여론의 판심을 끄는 사람들이 이런 반전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성경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태도라고 부르는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살아내는 믿음

몇주전 학생들과 함께 학과과정 중의 하나인 도시 체험 과목에 참여하였다. 한인 타운에 있는 호텔에 3박4일을 머물면서 타문화와 노숙자 문화를 경험하고 교회가 어떻게 타문화권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고려하여 사역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과목이다. 이번 학기에는 각 그룹이 정한 문화를 경험하러 가는 것 외에 수강하는 전체 학생들이 함께 가이드를 받으며 두 곳을 방문하였다. 처음 함께 간 곳은 우리 한국어 프로그램 캠퍼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Wilshire Blvd Temple이었다.

원서 길에 위치한 유대인 회당은 차를 타거나 걸어서 수없이 지나지만 굿지나만 막상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절차가 있었다. 파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security check office에서는 들어가는 차마다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들어보았다. 걸어서 간 우리 그룹은 스무 명이 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다 걸어서 신분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 건물에 들어보내는 철저한 보안을 하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정부기관 건물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에게 কা이 열려있는 교회와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회당 자체가 엄청난 자산일 뿐 아니라 유대인을 혐오하는 테러에 대한 방어진 것 같았다.

회당은 1929년에 건축했지만 2011년부터 2년 동안에 걸쳐 다시 벽화 등을 복구하고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한다. 보수, 수리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우리를 안내한 분의 말에 의하면 그 회당 멤버 중 1/3이 변호사라고 하니 그 회당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부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성전 안의 천장이나 벽화 등 모든 것들은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예술이었다. 천장 주위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주요 인물들의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전 밖 복도에는 유대인들이 한인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안과 봉사, 시민권시범 봉사 등이 열거되어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노숙자를 돕는 단체인 LA미션을 방문하였다. 지하철에서 내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길 곳곳에도 노숙자들이 이미 눈에 많이 띄었다. LA미션에 도착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코를 찌르는 냄새에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웠다. 여기 저기 앉아서 있는 노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서서히 숨을 고르며 그 냄새에 적응하느라 한동안 힘들었다.

LA미션은 기독교 단체여서 건물 안에는 예배실이 두 곳이나 있었다. 우리를 안내한 분은 친절하게 식당, 세탁실, 직업알선을 위한 사무실, 직업기술을 위한 컴퓨터실 등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식당에서는 노숙자들에게 하루에 1,600 그릇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주방을 담당하는 대표 요리사는 나이가 지긋한 흑인 할아버지였는데 본인이 알코올중독자로서 노숙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후 새 삶을 사는 분이였다.

<12면으로 계속>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뉴욕세시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뉴욕독양장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 3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 토</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침례회: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2: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기도: 화, 목, 토, 일 금요찬양기도: 화, 목, 토, 일(오후 7:30)</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모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동보기도회: 아침 7:40 요.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후회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전 7:30</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방송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p>	



목회서신

거짓 목사 50가지 분별법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필자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권위주의, 황금만능주의, 물량주의, 성장주의 등 세속화의 근본원인이 거짓 목사의 양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맞아죽을 각오로 '거짓 목사 50가지 분별법'을 편집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이 없는데도 신학을 하고 목사 된 자와 돈으로 목사직을 산 자 (2)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중도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목회를 하는 목사 (3)목사직을 하나의 세속적인 돈벌이 직업쯤으로

생각하는 목사 (4)성도들을 도구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목사 (5)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 채는 목사 (6)성도의 영혼을 사랑하기 보다는 그들이 내는 십일조나 헌금을 더 중하게 여기는 목사(성도의 머리수를 돈으로 계산하는 목사) (7)부자 성도는 챙기면서 가난한 성도는 괘시하는 목사(약 2:1-4) (8)일년이 지나도록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 해주지 않는 목사.(9)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목사(아무리 성도수가 많아도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다면, 기억하는 만큼만 두고, 나머

지는 다른 교회로 넘겨주어야 한다) (10)목회는 뒷전이고 각종 회의나 영광을 받는 자리나 각종 세미나에 쫓아다니기에 바쁜 목사.

(11)교회 위기가 닥쳐 오면 양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을 가는 목사(요10:12-13) (12)양들이 무서워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목사 (13)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은 이리와 같은 목사(마7:15) (14)교회에 분쟁이 났을 때에 자신의 몫을 찾으려고 성도들을 징계하는 목사 (15)양들을 이간질 시키고 당을 짓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목사 (16)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 돈을 빼서 자기 주머니

를 채우는 목사 (17)교회에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집회나 혹은 주례를 통해 생긴 돈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목사 (18)양들과 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금식을 하지 않는 목사 (19)죄를 책망할 줄 모르는 목사 (20)주일성수와 십일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

(21)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 (22)성질을 부리면서 급히 분을 내는 목사 (23)일구이언을 하는 목사 (24)성령을 받지 못한 채로 목회를 하는 목사 (25)예수님보다 총회나 노회, 당회의 눈치를 보는 목사 (26)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 (27)자신의 목회철학이나 중심이 없이 시대마다 나타나는 각종 유행을 좇아가는 목사 (28)예수님 외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목사(WCC에 가입된 목사, 종교다원주의를 추종하는 목사) (29)성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징계할 줄 모르고, 그 죄를 과면을 하지 못하는 목사 (30)예

수님의 명령보다 자기 처자나 가족을 더 중시해서 가족들의 결정을 따르는 목사

(31)거짓 예언을 하는 목사 (32)성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엄포를 놓는 목사 (33)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목사(나답과 아비후) (34)여색을 밝히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목사(흡니와 비느하스 같은 목사) (35)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치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양복을 입고 다니는 목사 (36)대접을 받으려 하고 전혀 대접할 줄 모르면 하는 목사 (37)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각종 행사에서 상석에 앉으려 하고 거만을 피우는 목사(마23:6-7) (38)자신이 한 설교를 한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에겐 그렇게 살라고 하는 목사 (39)차세대 통장을 만들고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사 모으고 교회 돈으로 자식을 유학 보내는 목사 (40)교회 돈을 이용해서 노회장과 총회장과 각종 단체의 장으로 출마를 하려는 목사(명예와 감투에 눈이 먼 목사). (41)부흥회나 각종 집회를

장사의 수단으로 하는 목사 (42)성도들의 영적 성장보다는 숫자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목사(총동원 주일, 경품전도대회를 좋아하는 목사) (43)교회와 세속적인 사업을 연계해서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목사(마21:13, 요2:16) (44)스포츠투 연예오락 같은 프로그램에 빠져 있고 골프를 치는 목사 (45)집회에 초청받을 때에 돈을 바라고 가는 목사 (46)사이비 강사를 강단에 세워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돈을 끌어내는 목사 (47)안식년을 핑계로 목회의 자리를 비우고 1년 쉬는 선교사와 목사 그리고 여기 저기 여행을 하면서 즐기는 목사(안식년은 토지에 대한 것이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안식년은 없다) (48)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을 범죠타고 고소를 하는 목사 (49)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목사 (50)7계(간음죄)를 범하고도 강단에서 뽀뽀하고 가증스럽게 의로운 척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관계자들

한반도 복음통일 위한 사역본격화 통일선교전략협 국제NGO 설립 장중단기 계획

통일선교전략협의회(대표 김요한 목사, 이하 통선협)가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한 사역을 본격화 한다. 김요한 목사는 “그동안 통선협사역이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며 “설립감사예배와 남가주연합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전략회의가 규모를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반도 복음통일 위해 이민교회가 준비돼야 한다. 복음통일은 통일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 이후 한반도의 복음화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이민교회와 더불어 통일선교전략협의회라는 국제 NGO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선협은 통일이전, 통일시, 그리고 통일 이후를 내다보고 각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전략 로드맵과 매뉴얼을 만들

어 교회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어떻게 통일선교를 할 것인지 실제적 대안과 가능한 사역을 제시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다. 사역으로는 선교사역, 구호사역, 치유사역, 지역개발, 교회재건이 있다.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는 “이민교회 중 감사한인교회가 통일선교에 있어 대표적 모델교회로 나서고 있다”며 “교회의 모든 구역이 북한지역으로 돼있다. 이는 김영길 원로목사가 북한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선협은 사역 중 국제재난구조요원 양성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역은 UN 지원으로 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재난이 있는 지역은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펼치게 된다.

김 목사는 “한반도에 비상사

태가 발생하면 비정규 기구와 다국적 연합기구가 투입되는데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며 “교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사회 교회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제재난구조요원 양성과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북한이 열렸을 때 재난구조 팀이 투입이 되는데 사이비 종교집단인 통일교는 관련 팀구성이 매우 잘 돼있지만 개신교계는 전혀 돼있지 않다”며 “통선협을 통한 재난구조요원 양성팀 구성이 잘된다면 통일시 혼란기에도 주도적으로 북한구호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요한 목사는 “앞으로 통일선교대학을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세우게 되며 이 학교의 상담학과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선협의 치유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진 목사는 “북한사회가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라 언급하며 “우상숭배하는 영적문제도 심각하다. 완전 개방될 때 갖게 될 상실감 배신감 등 트라우마에 대비해 해마다 2차례 치유세미나 하며 치유사역자를 배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기총 제 7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기총 신임 대표회장에 최낙신 목사 제 7차 정기총회, 수석상임회장에 윤보환 목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제 7차 정기총회가 3월 19일 오전 9시30분 태국 방콕 센츨리파크 호텔에서 임원 및 정회원과 해외 11개국에서 온 총회 대의원들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신임 대표회장에 최낙신 목사, 수석상임회장에 윤보환 목사가 선임됐다.

신임대표회장 최낙신 목사는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협력을 당부하며 “국내 및 미국, 일본 등 해외 각처에서 통일기도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별사업으로 전세계 각 지역 교회들과 선교단체 파악 그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하나로 결합해 목회와 선교에 대한 정보 및 방법론 공유 시이를 극대화

시키며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지부 설립 △각 지부 네트워크로 통합적 기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일원화 체계를 이룩해 기독교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을 피력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개회예배는 수석상임회장 최낙신 목사 인도로 상임회장 김동근 장로의 기도, 공동회장 조석상 목사의 성경봉독, 설교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김광숙 원장(백함위십)의 몸 찬양, 상임회장 황경일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2부 회무처리는 수석상임회장 최낙신 목사의 환영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내빈소개, 대표 회장 정서영 목사의 의장 인사, 상임회장 오영자 목사의 개회기도 순으로 시작했으며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회계 보고를 처리하고 공로패 및 감사패를 증명했다.

공로패는 상임회장 윤보환 목사에게, 감사패는 상임회장 심평중 목사, 상임회장 김동근

장로, 상임회장 오영자 목사, 상임회장 김윤숙 목사, 공동회장 하효련 목사에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전달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대표회장으로 수석상임회장 최낙신 목사가 추대됐으며 박수로 선출했고, 신임 수석상임회장은 감리교중부연회 직전 감독 윤보환 목사가 추대됐다.

임원인준 및 7회기 사업계획, 예산 심의와 정관개정위원회 선정의 건을 처리하고 공동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7회 총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라오스선교사 김기주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이취임 예배는 회의를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윤보환 목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증경대표회장 황의준 목사가 “신이라 하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직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이임 인사와 최낙신 목사의 취임 인사 및 깃발 및 의사봉 인수인계, 공로패 및 취임패 전달시간이 있었다.

격려사는 증경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고시영 목사, 황경일 목사가, 축사는 미기총대표회장 심평중 목사와 재일한국인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인 이상열 목사, 주태국한국인선교사회 수석부회장 송형관 목사가 하고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광고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제 12차 태국 방콕 글로벌 통일기도회도 함께 열렸다.

(기사제공: 세기총)



미주장신대학교가 주최한 제12차 기독교인문학 목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이날 강사로 나선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디렉터 김창환 교수

주제 '공적신학', 강사 김창환 교수 미주장신 제 12차 기독교인문학 목요포럼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제 12차 기독교인문학 목요포럼을 3월 28일 오후 7시 본교 채플실에서 가졌다.

박동식 교수 사회로 시작된 포럼의 강사는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디렉터 김창환 교수가 맡았다.

김창환 교수는 “언제부터인지 세상의 학문들은 모든 사람과 사회에 기여를 하는데 신학은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신자들에게도 공감과 가져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대학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은 왜 신학이 우리 학교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신학은 교회에 공헌은 하지만 사회에는 어떤 의미로 공헌하는가란 고민이 있다. 이러한 고민들과 이유들로 ‘공적신학’에 대한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서구사회에

서 교회 영향력이 공공부분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교회는 사회에 대해 영적인 우위적 입장에 서있지만 이보다 외부의 비평을 겸손히 수용하는 것이 공적인 대화”라 말했다.

그는 “공적신학은 신학교 혹은 대학교에 속해있다. 교회와 협력하고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조, 그래서 공적영역에 참여한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부, 마켓,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 담당한다”며 “신학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과 관계를 다루는 것 외에 사람과 관계와 사회개혁에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신학은 △첫째, 신학은 본질적으로 공적이다. △둘째, 신학이 중립적이지 않는 것이 신학적 결과가 공적부분 깊어 관여한다. △셋째, 공적신학은 개인적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다리가 돼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공적신학은 종교적 공동체와 일반대중에 설득되고 평가 판단되는

방법으로 주장되는 담론이다. △넷째, 개혁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은 여러 신학교가 이에 대한 전통에 입각한다. 이는 개인구원과 사회개혁 전통이 항상 상한다. 때때로 개인구원 개인영성 개인윤리에 치중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창환 교수는 결론적으로 “공적신학은 교회 공적책임과 공공성이 강조되며 공적신학의 발전은 공공신학적 조망, 공적신학 근거, 본질연구, 다양한 주제, 방법론, 신학적 비평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중' 브라질새소망교회 고 박재호 목사 추모예배

고 박재호 목사(브라질새소망교회) 추모예배가 3월 29일 오후 2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향년 83세.

성결대학교 미주서부동문회(회장 이윤수 목사), 세계기독교인연합회(회장 임승태 장로), 미주전송가교회(회장 오성애

권사), 미주웨슬리언연합회(회장 이상복 목사),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최경환 목사) 주최로 열린 추모예배는 조명한 목사(크리스천윌리 발행인) 사회로 시작, 이윤수 목사가 기도했으며 정세광 목사(미주전송가교회 이사)가 약력을 소개했다.

이어 이경호 목사(영생장로교회 음악목사)가 조가를 불렀으며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중’(딤후4:7-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서종천 목사(크리스찬투데이 발행인), 이상복 목사, 박용덕 목사(예성 미주총회장)이 추모사를 했으며 고석타 전도사(새소망교회 출신)가 추모 연주했다.

(11면으로 계속)



고 박재호 목사 추모예배에서 송정명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east

퀸즈장로교회 부활절 찬양제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는 부활주일인 4월 21일(주일) 오후 4시 “부활, 그날을 기대하라”라는 주제로 부활절 찬양제를 개최한다.
▲문의: (718)886-4040

제 2회 청지기부부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 2회 청지기부부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주제로 4월 28일(주일) 오후 6시 뉴욕 든든교회(남일현 목사)에서 열린다. 지휘 신동기, 피아노 신주희, 뉴욕심포니 관악앙상블이 출연한다. 티켓은 2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주님의식탁선교회와 뉴욕나눔의 집을 후원한다.
▲문의: (917)386-8852이종태 목사, (646)238-4883정인수 목사

‘교도소 선교와 내적치유 세미나’

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교도소 선교와 내적치유 세미나’가 4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리더포드한인감리교회(56 W. Passaic Ave)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영희 목사(TPPM 대표).
▲문의: (201)438-4486

뉴저지목사회 바비큐 미니 체육대회

뉴저지목사회(회장 김홍준 목사)가 오는 5월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미동부 4개주 목사회 체육대회를 앞두고 바비큐 미니 체육대회를 갖는다. 일정은 4월 8일(월) 오전 9시 Tallman Mountain State Park(예정). 참석자들의 사전 연락을 바란다.
▲문의: (201)870-3373 총무 김주현 목사

퀸즈한인교회 소위즈 초청 음악회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 설립 50주년 맞이 행사 중 하나인 소위즈(SOWERS: Sound of Worshippers) 초청 음악회가 4월 6일(토) 오후 7시에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소위즈 선교팀은 모두 전문 오페라 가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사회와 교회를 향해 기도과 찬양을 선포하는 비전으로 모인 중보선교 찬양팀이다.
▲문의: (718)672-1150

뉴욕한인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

뉴욕한인제일교회 박효성 목사 은퇴식과 후임 송인규 목사 취임식이 6월 30일(주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에 앞서 5월 19일(주일)에는 교회설립 36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동교회는 박효성 목사가 개척했다.
▲문의: (914)332-7640

사역자 청빙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에서 풀타임 교육 목사(교육부 총괄, 고등부)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전도사로 교육 사역의 확신과 비전이 분명하고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영어로 설교가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자기소개서(소개 및 간증), 신앙고백서, 제출마감은 4월 30일이며 e-mail(PDF)로 보내면 된다. 웹사이트 www.nybay-sidechurch.com
▲이메일: David2lord@hotmail.com

ATS 한인동문회 세미나

ATS 한인동문회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4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에서 열린다. “인문학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선교”라는 주제로 강사는 고석희 목사.
▲문의: (917)294-2097 민병욱 목사, (646)464-2448 이재두 목사

뉴욕에서 부르는 장년세대를 위한 화요찬양모임(대표 유태웅 목사)이 지난 26일 킨더마이즈 미션센터에서 열렸다.

“내 생애 최고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김효성 목사의 기도 후 시작돼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갈보리 산 위에” 등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한 목소리로 부르는 ‘내 머릿속의 찬양’ 하이라이트는 참석자들과 연주자들이 함께 듀엣으로 부른 ‘엠마오 마을로’를 합창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특별 초대 손님 제시유 교수는 깊이 있는 연주로 참석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첫 곡은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스윙버전으로 소개했고, 특히 한국에서 공수해온 클라리넷과 리코더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클라리코’ 악기는 심령을 울리는 소리로 많은 분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유 교수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주 예수 보다 더’를 연



지난 26일 뉴욕에서 부르는 장년세대를 위한 화요찬양모임에서 참석자와 연주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초대 손님 제시유 교수 연주로 힐링

뉴욕에서 부르는 장년세대를 위한 화요찬양모임

주했으며, 색소폰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앵글로곡으로 찬양 메들리를 연주했다. 마지막 찬양곡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준비했지만 즉석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며 박영표 목사의 마무리 기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음 주 초대 손님은 ‘맨하탄 천로역정’을 기획 준비한 이경림 화가가 초대된다. (기사제공: 화요찬양모임)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RCA 뉴욕한인교회협, 민종기 목사 초청 연합집회

RCA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연합부흥성회가 지난 3월 29일부터 3일간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에서 열렸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라는 주제로 강사는 LA 총현선교회 민종기 목사를 초청했다. 연합성회 첫날 민종기 목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6-15)라는 제목으로 갈렘의 4가지 믿음에 대해 전했다. 첫째, 45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 둘째, 독선적이지 않음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담대한 개척정신 넷째, 자신의 희생과 함께 후진을 세



RCA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연합부흥성회에서 강사 민종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우는 리더십을 갈렘의 4가지 특점으로 언급하며 이 시대의 갈

렘은 누구인가를 결론적으로 전했다.

민종기 목사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판하고 말씀으로 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며 “하나님께서 RCA 교회 성도들에게 시대를 열어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회는 강주호 목사 인도로 진행됐다. 둘째 날은 이성희 목사 인도로 축도는 한재홍 목사가 했으며 셋째 날은 조대형 목사 인도로 축도는 이종삼 목사가 했다. 민종기 목사는 둘째 날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삼상 30:7-20), 셋째 날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요15:9-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가 주최한 이단대책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교회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신천지 이단세미나

미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가 3월 28일 오전 10시 뉴욕 나무교회(정주성 목사)에서 “교회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이단대책 세미나를 열었다. 회장 이재철 목사는 “예장합동 이단대책위원회가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며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이왕이면 총신 동문들도 귀한 세미나를 듣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개최 과정을 소개했다. 예장합동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철 목사)가 후원한 이 세미나는 이대위의 해외사업을 위한 것으로 강사는 신천지 금천교회 담임이었던 권남규 실장이 맡았다. 이날 뉴욕에서 목회를 했던 황석산 목사가 이대위 임원으로 참가해 임원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강사 권남규 실장은 2011년 뉴욕에서 이단대책 세미나를 통해 신천지의 실상을 폭로한 바 있는 전 신천지 교육장 신현

욱 목사 등과 함께 신천지를 개혁하려다 실패하고 2006년 신천지를 나왔다. 현재는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 상담실장, 부산이단대책위원회 위원, 이음교회 담임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남규 실장은 뉴욕일원에 주일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신천지인만 300-4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해외 40개국 교회(김성국 목사)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이왕이면 총신 동문들도 귀한 세미나를 듣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독일과 LA가 연합 수료식을 했는데 1,100명 정도 수료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한편 이 세미나는 LA에서도 열린다. (유원정 기자)

“주는 자의 복” 받는 단체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정기예배가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평화교회에서 열렸다. 회장 이종명 목사가 ‘본 기구의 발전과 성장, 주어진 사명 감당을 잘 하도록’ 기도한 후 시작된 회의에서는 박이스라엘 목사가 사역보고를 했다.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현재 아동결연이 94명이며 후원대기 아동이 10명이라고 밝히고 선교지 아동들이 보내 온 카드를 배부했다. 또 전임 사무총장과 회계를 역임했던 전희수 목사와 권케더린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전 회수 목사(상임고문), 설교 임병남 목사, 합심기도, 축도 박진하 목사(상임고문) 순서로 진행됐다. 임병남 목사(뉴욕평화교회,

기획국장)는 “주는 자의 복”(행 20:33-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복이라는 말을 모두 좋아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주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고 복을 받으려면 첫째,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 둘째, 은밀하게 주라, 셋째, 예수 이름으로 주라”고 말하고 “복음을 주고 빵을 주는 사역을 하는 기아대책은 이 3가지를 지켜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하늘에서는 상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은 서기 권케더린 목사의 광고와 이종명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4월 정기예배는 24일(수) 오전 10시30분 새소망성리교회(박이스라엘 목사)에서 열리며 이날 뉴욕을 방문하는 김혜정 선교사(콜롬비아)가 말씀을 전한다. (유원정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세상의 각성과 교회의 회복

세상으로 하여금 각성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이여 깨어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하며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교회의 온전함, 예배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 세상의 각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이 세상을 깨우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던 유다 왕 요시야로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들의 죄를 지적하며 외쳐댔지만,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바꾼 채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변론을 내놓을 따름이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자고새처럼 살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자고새의 의미가 무엇인가? 속임과 도적질의 상징이다. 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자기 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형식적인 신앙이요, 종교적인 삶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며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치유하려고 외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편리함과 소비자중심주의에 몰든 사상들을 제하여야 한다. 사람의 편리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 세상을 깨울 수 없다. 예배는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야 교회와 예배가 회복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결국, 자신의 신앙도 회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무기력한 성도가 되

며, 그의 섬기는 교회는 승리하지 못하는 책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종교를 원하는 시대

오늘날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이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천국 하는 모임으로 전락했다. 사람에게 굴복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을 땅에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자만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사대교회의 모습과 같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실제로 생명이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 세상을 향한 회복과 각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한다. 소비자중심주의, 편리주의, 이기적 개인주의를 벗어나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 안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세상도 깨어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68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연다

5월 2일 나성순복음교회... 한국과 미국위해

제 68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를 올해도 5월 첫째 목요일인 5월 2일에 갖는다. 연합기도회는 '2019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회'라는 주제로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이 3월 27일 오전 11시 기도회 장소인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공동주최를 맡은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교회협의회, OC목사회에서 온 단체장들이 자리했고, 공동주관을 맡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송정명, 진유철 공동대표)와 나성순복음교회 관계자도 함께 했다.

이번 한인 커뮤니티 내 국가기도의 날 행사는 그동안 JAMA(대표 강순영 목사)가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해당년도 행사참여 교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맡는다. 올해는 나성순복음



제68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교회가 주관 교회로 참여한다.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는 “국가기도의 날 본부에 따르면 올해 특별히 4만7천여 곳에서 동시에 기도 모임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그중 한인 커뮤니티 역시 연합해서 나성순복음교회로 모인다. 올해는 특히 조국이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제를 정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 등도 기도자로 세울 예정이다. 또한

여러 남가주내 참여 단체와 함께 행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개요를 밝혔다.

진유철牧사는 “국가기도의 날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 미국이 지금 선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기도해야 한다. 이번 국가 기도회 날은 개인이나 단체가 주가 아닌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되어 기도해야 한다는 모토에 충실하자”고 전했다.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협회장)는 “기도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한 열정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기도는 동을 보면서 그들의 삶과 기도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보게 됐고 저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조국의 현실을 보면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다. 뉴스를 보면 끄지 않을 수 없고 탄식이 나온다. 이때 깨어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의 날을 준비하며 은혜 받고 기도가 성취되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관측은 5월 2일에 앞서 4월 28일 주일을 국가기도의 날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남가주 내 모든 한인교회와 나누길 바란다는 의견도 전했다. 대회당일 강사 안내 등은 오는 4월 중순 경 발표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텔런트 신애라 집사가 간증하고 있다

“인생최고의 선택, 믿음은 주어지는 것”

은혜한인교회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텔런트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를 3월 29일 저녁 8시 개최했다.

한기홍 목사 사회와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간증집회는 한기홍 목사의 소개를 받고 강단에 선 신애라 집사가 ‘선택’(살전5:16-18)이란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풀어냈다.

신애라 집사는 “우리인생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이라며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 지금이 모습을 만들어 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은 20%정도고 나머지는 그 상황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다. 그것이 80%를 만든다”고 말했다.

신애라 집사는 어린 시절 교회 다닌 이야기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 나갔다.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신 집사는 “연기자이다보니 구호단체에서 홍보대사 제의가 자주 오게 된다. 하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컴패션은 왠지 알고 싶어졌는데, 컴패션 사역은 선교와 직결됨을 알게 됐고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컴패션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두 아이의 입양이야기를 전하며 위탁아동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것에 대해 4년 반전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이곳에서 위탁아동 사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4만명 고아가 한국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중 6천 명이 입소하고 4천여 명이 18세가 되어 퇴소한다”며 “이들을 보며 아이들은 기쁜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기위탁에 대해 기도했는데 가정상담소에서 위탁아동사역인 동지찾기 프로젝트를 만나게 됐다. 한국에 돌아 가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정

에서 자랄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다. 그들을 통해 교회들과 협력해 입양위탁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신애라 집사는 “인생최고의 선택은 믿음이며 믿음은 선택이 아닌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내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은혜에 선택물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가져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 좋은걸 경험할 수 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내생각과 달리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온다”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독대할 날이 오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신애라 집사 간증이 시작되기 전 은혜한인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플린학교 수료식이 있었다.

제임스김 목사(채플린학교 담당) 인도로 갖게 된 채플린학교 수료식에서는 본 교회 최윤정 장로, 채경아 전도사, 김임경 집사가 UCI메디컬센터에서 5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소정의 채플린과정을 마친 것을 알리며 수료증을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수익금 전액 오네시모선교회 전달

OCKMC 제 3회 정기연주회

오렌지카운티코리안메스터 코랄(OCKMC 단장 장경민, 지휘 강미영) 제 3회 정기연주회가 3월 31일 오후 7시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조성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무직디렉터) 개회기도로 열린 연주회는 ‘성령이여 오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 ‘알렐루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세’

등 성가곡과 ‘홀로아리랑’, ‘고향의 봄’, ‘잘했군 잘했어’ 등 가곡과 대중가요를 불렀다.

이날 피아노 듀오(김형순, 조혜원), 콘피도 뮤직 소사이어티 트리오, 시드오브 위십이 찬조 출연해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한편 이날 정기연주회의 티켓판매 수익금은 전액 오네시모선교회에 전달됐다.

(박준호 기자)



인랜드교회 5대 담임 안환 목사 위임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온전히 봉사하고 교회 세우기에 최선”

인랜드교회 제 5대 안환 담임목사 위임예배

인랜드교회 제 5대 안환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31일 오후 4시30분에 열렸다.

안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소명을 세 가지로 생각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 신앙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대학생 때를 공부와 복음전도로 보냈다. 둘째, 목회자로 부르심이다. 아버지의 목회가 힘드셔서 목사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어찌할 수 없어 순종하며 나아갔다. 셋째,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단독목회를 하게 됐다. 인랜드교회 담임으로 불려주셨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빙과정을 거치면서 나 자신이 맞는 자인지 묻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마음편치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려 한다. 단독목회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은 열4:12이다. 이 말씀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늘 가슴속에 새겨졌던 말씀이다. 인랜드교회의 목사가 된 것은 성도들이 온전히 봉사하게 하고 교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감당하려 한다. 기도, 사랑과 함께 격려 위로하

고 함께 달려가길 간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예배는 한성윤 목사(서남노회 부회장) 인도로 찬양팀의 찬양인도 후 김정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인랜드 연합찬양대가 특별 찬양했다.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교회)가 ‘성경적 기준’(삿7: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지성 목사는 “신앙생활은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셨다. 신앙의 삶은 영성이 기준이다. 영성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질 때 관점이 제대로 세워진다. 인랜드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세웠다. 이는 중요한 시점이다. 제 5대 담임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따라 교회에 세운 기준을 온 땅에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인랜드교회를 통해 주님은 더 큰 영광, 기쁨 얻으시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란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 복된 교회가 되길 축원드린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전권위원장 정희주 목사가 위임서약, 위임기도, 공포했으며 위임수 수여했다.

함광훈 목사(서남노회 전노회장)가 권면했으며 안환 목사가 위임사, 고건주 목사(서남노회 전노회장)가 축사했으며, 김선영 집사가 특송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안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제7회 미주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주최한 제7회 미주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축하공연이 6일(토) 오전 10시 홀러턴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670-8004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취임감사예배
 한우리교회 김양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4월7일(주일) 오후 4시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2962 Madison St., Riverside, CA 92504)에서 열린다.
 ▲ 문의: (951)509-1004

다민족 성령문화 사역훈련을 위한 노형건의 성령이야기
 다민족 성령문화사역 후원을 위한 노형건의 성령이야기가 ‘한번 더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6일(토) 오후5시 Leisure World ClubHouse 4(1419 Northwood Rd, Seal Beach, CA)에서 열린다. 이날 사회는 전인철 목사, 말씀은 백현민 목사가 전하며 글로벌 메시아 찬양 선교단(지휘: 노형건, 반주: 신혜영)이 특별출연한다.
 ▲ 문의: 박윤택 장로 (213)550-9991

(9면에서 계속)

고 박재호 목사(사진)는 193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성결신학대학교와 동 신대원을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캐나다크리스천칼리지와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성결신대 교수와 미국 아주사퍼시픽대와 캘리포니아신학대, 동부개혁장신, 국제개혁에서 교회행정학을 가르쳤다.

그뿐 아니라 브라질국제성결신학대, 남미선교신학대, 브라질기독교대학 학장을 지냈고, 서울기독교대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 선교대회 강사,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미주찬송가공회 회

장, 미주웨슬리언연합회 회장, 세계한인기독교문협 회장 역임했고, 미국의 성결교회 100주년 기념 남미대회장, 한국교회부흥성령 100주년 기념 남미대회 강사와 브라질교연, 브라질목회 회장 역임했고, 남미복음신문 창간 발행인으로 문서선교에 열정을 쏟았다.

1969년 전도사로서 서울 개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후 1981년 브라질로 이주해 대한교회 담임목사, 1984년 새소망교회를 개척해 35년간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저서로는 ‘기독교예식’, ‘교회행정학’, ‘성경과 신학’ 등 30여권을 저술했다. 인생을 바쳐 헌신한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일하다 죽고 싶었던 그의 말대로 자신이 개척해 목회해온 새소망교회 당회장실에서 지난주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박준호 기자)



전태식 목사 성경목회 세미나에서 전태식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창장부터 제22장까지 천국 가는 말씀”

전태식 목사 제 2회 성경목회 세미나

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의 제 2회 성경목회 세미나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29일 오전 강의에서 전태식 목사는 “천국은 예수를 고백해야 하는 것, 그리고 물과 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곳”이라며 “이는 성령으로 고백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경우 사영리로 고백하게 하는데 고

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고백인지 사람으로 인해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백한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이 아니다. 고백한 자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거듭남의 증거는 아버지의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이며 믿어지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게 된다”라 설명했다.

전태식 목사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성경을 알 수 없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천국 가는 말씀이다. 거듭남을 어떻게 아느냐, 롬5:5에 나온 것처럼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 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제3회 성경목회 세미나는 4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OCKMC 제3회 정기연주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교회 청소년 10명 중 4명 “구원 확신 못한다”

월간 ‘교회성장’ 청소년·사역자 설문조사

교회에 나오는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명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10명 중 7명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성장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 ‘교회성장’이 지난 2월 전국 30개 교회 다음세대 어린이 청소년 356명, 다음세대 사역자 4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질문에 62.9%가 ‘그렇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30.6%, ‘아니오’ 6.6%로 집계됐다.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라고 묻자 ‘있다’고 답한 경우가 58%였다. 37.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은 4.3%였다.

김대학 편집부장은 “평균 이상의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이 교회 출석률이 높고 교역자와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볼 때 42.0%가 구원의 확신에 대

해 모르겠다거나 없다고 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역자들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회의 공과공부가 재미없다는 청소년도 적잖았다.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꼽아보라는 질문에 18.9%가 ‘공과공부’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에게 교회에 바라는 점을 묻자 19.4%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설교를 재밌게 해 달라(13.6%),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도와 달라(11.4%),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11.0%), 성경

을 잘 알 수 있게 해 달라(10.3%) 순이었다.

다음세대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청소년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세대 사역과 관련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을 묻자 ‘아이들과의 소통 방법’이라고 답한 이들이 40.0%에 달했다.

사역자들이 담임목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다음세대 사역의 독립성을 존중해 달라’(24.1%)는 것이었다. 이어 재정 지원(21.5%), 아이들에 대한 관심(16.5%), 다음세대를 위한 장년의 관심과 참여 독려(15.2%), 시설 확충(11.4%) 순으로 나타났다.

애국지사 김태연,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상해 외국인 공동묘지에서 뒤늦게 발견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가 10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

송실대(황준성 총장)는 28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외국인 공동묘지인 만국공묘(萬國公墓)에서 애국지사 김태연(1891~1921) 선생의 묘를 고국에 모시기로 하는 파묘행사를 국가보훈처와 함께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만국공묘에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박은식 선생

과 신규식 선생 등 7명의 유해가 한국으로 옮겨졌다. 김 지사의 유해는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실대를 졸업한 김 지사는 1891년 황해도 장연 출생으로 1917년 송실대를 졸업한 기독교 교인이기도 하다. 송실대 재학 당시 문학부가(현재의 교가)를 작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3·1운동 이후 김 지사는 아내와 네 딸을 고향에 남겨두고 상하이로 망명한다. 많은 한인

이 독립운동을 위해 상하이로 물러갈 때, 김 지사는 몽양 여운형 등과 함께 상해대한인거류민단을 조직한다. 상해 한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인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무장독립투쟁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20년에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돕는 구국모험단 참모부장을 맡아 군자금 모집과 무기 구입을 관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관청을 파괴하고 관리를 암살하는 등 무장투쟁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1921년 타지에서 병으로 만 30세의 짧은 생을 마쳤다.

유족 대표로 파묘행사에 참여한 조관철 씨는 “김 지사의 셋째 딸인 어머니도 외조부가 묻혀계신 곳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했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황 총장은 “기독교 민족대학인 송실대가 지금까지 파악한 독립유공자는 84명”이라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던 선배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독립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김 지사의 뜻을 이어 남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관선 이사 파견 요구

안양대 타종교 매각...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 입장문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25일 안양대 우일학원(이사장 김광태)의 대진성주회 매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육

부의 관선 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2012년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참여해 구성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다.

전북극동방송 오는 13일 개국

전북극동방송(지사장 한홍근)이 오는 13일 전북 익산시 마한로에 위치한 극동방송 공채홀에서 송출식 행사를 갖고 개국한다. 오전 7시 이리 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열리는 개국 조찬 감사예배에는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 운영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의 13번째 지사인 전북극동방송은 설립 추진 10년 만인 지난 해 9월 20일 설립 허가를 받았다. 전주, 익산, 김제, 군산, 정

읍 등 전북지역을 가청권으로 한다.

개국 축하음악회(포스터)도 열린다. 12일 신광교회에서 열리는 음악회에는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 소프라노 박하나, 평양음악대학교 출신 탈북 성악가 팜페라 소프라노 명성희 등이 출연해 축하 무대를 꾸민다. 전북극동방송은 FM 91.1MHz 또는 극동방송 라디오 앱(전북지사)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나사렛성결회 신임감독에 신민규 전 나사렛대 총장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는 나사렛대 총장을 지낸 신민규(삼암동교회) 목사를 신임 총회감독으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신 목사는 지난 26일 충남 천안 성환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4차 한국총회에서 2차 투표 끝에 대의원 578명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총회감독은 3년 임기로 교단 대표뿐 아니라 유지재단 이사장과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 등을 겸한다. 신 목사는 “한 없이 부족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총회를 열심히 섬기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 국제나사렛성결회 중앙감독인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목사가 의장을 맡았다. 그레이브스 목사는 김영수 전 총회감독 등과 함께 각부 위원회 보고 등의 회무를 처리했다. 부교역자 육성을 위해 3년 전부터 논의됐던 총회 직업 신학교 신설 안건은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소강석 목사, FMC로부터 특별감사패 받아

백악관 방문 복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 의견 전달

(사)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3월 28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전직연방의원협회(FMC, The Association of Former Members of Congress)가 수여하는 특별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미 연방하원의 채플린(chaplain) Patrick Conroy는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최초의 일이며 매우 이례적이며 뜻 깊은 일”이라고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Korea Peace Sharing Foundation)의 이사장으로서 2007년부터 12회째 해마다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하며 한미 간의 우호증진과 민간외교에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으며, 미국 해외참전용사협회(VFOW) 부회 금훈장을 수상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편지와 기념메시지를 두 번 받은 바 있다.

소강석 목사는 답사를 통해 “

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그분들의 한국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눈물에서 보았고, 그 노병들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은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12년 이상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하고 한미 간 민간외교에 밀알이 되어 왔다. 우리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피로 맺은 동맹국이다. 한미 간의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남북의 평화분위기 조성과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회 전·현직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특별감사패는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나누는 소중한 마음이라 생각되고 받겠다”고 전했다.

이번 미 국회 FMC 행사를 위해 26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소강석 목사는 26일 오후,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Melisa Fwu 대외소통담당 비서관(Associate Director)과 종교담당 연설비

전북극동방송 오는 13일 개국

전북극동방송(지사장 한홍근)이 오는 13일 전북 익산시 마한로에 위치한 극동방송 공채홀에서 송출식 행사를 갖고 개국한다. 오전 7시 이리 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열리는 개국 조찬 감사예배에는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 운영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의 13번째 지사인 전북극동방송은 설립 추진 10년 만인 지난 해 9월 20일 설립 허가를 받았다. 전주, 익산, 김제, 군산, 정

읍 등 전북지역을 가청권으로 한다.

개국 축하음악회(포스터)도 열린다. 12일 신광교회에서 열리는 음악회에는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 소프라노 박하나, 평양음악대학교 출신 탈북 성악가 팜페라 소프라노 명성희 등이 출연해 축하 무대를 꾸민다. 전북극동방송은 FM 91.1MHz 또는 극동방송 라디오 앱(전북지사)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서관 Amanda Robbins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핵시설과 ICBM 등 복핵 폐기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미국교회와 목회적 생태계를 지켜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배려와 조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했다.

27일에는 미국전직연방의원협회(FMC)에서 주최하는 제22회 Statesmanship Awards dinner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했다. 미연방 하원의원 3선을 지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소강석 목사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의 인사

를 전하며 한미관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직접 연락해 달라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FMC는 미국의 전직 연방 상, 하의원과 현직 연방 의원, 그리고 보좌진과 간부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비영리 모임으로 미 정부와 전, 현직 의원들의 의견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과 정책제안 및 효과적인 정책결정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체로 1970년에 설립돼 1983년에 미국 의회에 공인된 단체다.

현재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 연방하원의원 3선을 지낸 Jay Kim(한국명, 김창준) 전 의원이 소속돼 있는데, 이번 소강석 목사의 미국 방문과 모든 행사일정을 각별히 주선했다. (기사제공: (사)한민족평화나눔재단)

한교총, ‘NAP 반대’ 공동설교·서명운동 편다

“NAP 시행 땐 성평등 이름으로 종교 차별·탄압 가능성...”

한국교회 95% 이상이 소속돼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한교총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상임회장의 회의를 개최하고 NAP 반대 캠페인 진행과 성명서 채택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단장들은 이날 29개 교단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회는 통치자의 권세를 존중하지만,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해 왔다”면서 “NAP 시행이 성평등과 차별금지 이름으로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가증한 죄악이지만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이라면서 “NAP 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하며,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은 제정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교총이 NAP 반대 캠페인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NAP가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조장하는 젠더(gender) 평등을 추구하는 데다 한국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정 종교가 기독교 선교를 위축시키기 위해 유포했던 종교편향 논리로 들어있다.

“낙태수술 때 엄마는 뱃속 아기를 끝까지...”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30일 집회, 현재의 낙태죄 합헌 결정 촉구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8개 단체는 30일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낙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태아 살인을 정당화 하지 말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의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장은 “나도 한때는 낙태수술을 했는데, 유산한 아이를 밖으로 꺼내는 수술과 살아 있는 아이를 밖으로 꺼내는 수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수술하면 죽은 아이는 바깥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려고 하지만 난 살아 있는 아기는 엄마가 끝까지 잡고 있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을 하는 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낳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모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굶어내도 아기가 나오지 않으면 무리하

게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궁에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피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가 낙태죄 폐지보다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은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까지 충분히 만들어 놓은 뒤 낙태 폐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이 여성의 신체에 끼치는 해악도 소개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이 위험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것은 낙태수술을 찬성하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낙태 옹호론자와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낙태수술이 마치 정의로운 선택인양 인권을 앞세운 기만적 선동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태아 살인을 정당화 하지 말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의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장은 “나도 한때는 낙태수술을 했는데, 유산한 아이를 밖으로 꺼내는 수술과 살아 있는 아이를 밖으로 꺼내는 수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수술하면 죽은 아이는 바깥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려고 하지만 난 살아 있는 아기는 엄마가 끝까지 잡고 있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을 하는 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낳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모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굶어내도 아기가 나오지 않으면 무리하

게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궁에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피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가 낙태죄 폐지보다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은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까지 충분히 만들어 놓은 뒤 낙태 폐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이 위험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것은 낙태수술을 찬성하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낙태 옹호론자와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낙태수술이 마치 정의로운 선택인양 인권을 앞세운 기만적 선동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lpyun@apu.edu

mission 선교의 창 (121)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선교지 신학교의 실태와 대안

“좋은 세상이 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훌륭해야 하고 이러한 목회자를 위해서는 신학교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좋은 사관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다. 현재 한인 세계선교는 170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중 여러 나라에서 현지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한인 선교사가 주도하는 신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신학교 중 극소수를 빼고 대다수는 학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 실상이 열악하다. 뭔가 혁신적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태로 지속 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없을 뿐더러 현지 나라에서도 배척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마음을 비우고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없는 선교지의 대표적 신학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 선교지의 신학교 실태

세계 여러 곳에 필요이상으로 한인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있다. 각 선교부마다 신학교육을 주력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경학교 수준의 신학교들이 난립함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훌륭한 선생, 잠재력 있는 학생들, 적절한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사실 선교지에서 신실하고 실력 있으며 사표가 될 만한 선생님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강사를 초청하고 통역을 붙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 교육 목표에 따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내용보다 시시때때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학사 일정을 맞추게 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소명과 역량 있는 목회자 후보생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불쌍사나운 사람 뽑기 경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신학교에는 소명은 커녕 학문적 소양과 성품 등 신학생으로서 자격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교육할 때 서로 힘만 들며 결과가 좋지 않다. 나아가 학교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보안 때문 수시로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불안하고 산만함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현지실정에 맞지 않은 커리큘럼, 교육 기자재와 도서, 재정 등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 개혁적 대안

선교지의 신학교 실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첫째, 선교사들이 소속교단이나 파송기관을 초월해 신앙과 신학의 색깔이 유사하다면 신학교들을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개인 혹은 집단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한 나라의 선교적 승패는 현지 지도자 양성에 달려 있다. 신학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다. 선교지에 난립해 있는 신학교들은 신학노선에 따라 통폐합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연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현지나라에서도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신학교들이 정리되면 교수 수급과 학생 선발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선교지에 서 나타나지는 많은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개 전투식의 사역은 힘만 들고 효과도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둘째, 교육내용을 서구신학(Dogma) 중심을 탈피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신학교제도(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에서부터 사이버교육(Cyber Education System)이란 초현대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다. 성경과 실천신학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배정해야 한다. 여기서 배출되는 사람들은 학자가 아니라 교회를 책임질 전도자와 목회자들이 아닌가? 그들 중 학문에 자질이 있고 더 기울만한 사람들은 장차 유학의 길로 나가도록 도우면 된다.

셋째,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해외 기관들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학교는 크든 작든 학교이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 산하 신학분과 차원에서 서로 정보와 매뉴얼을 공유하며 당면 문제들을 연구하고 같이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신학교 차원에서 ‘찾아가는 재교육 시스템, 통신을 통한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면 현역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Objectives)를 먼저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교과과정(Curriculum)을 설정해야 한다. 사람중심으로 형편에 따라 운영하면 배가 산으로 가기 쉽다. 신학교육은 영적인 요소(Spirituality)와 함께 지식과 기술과 선생들의 인격과 열정이 어우러져야 한다. 이런 면이 일반교육과 다른 점이다.

신학교육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 교과과정에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을 근간으로 하고 그 위에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을 안배하는 것이 바르다. 방법론적으로도 자칫하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기 쉽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공식적인 학교교육(Formal)보다는 비형식(In-formal) 교육과 생활 속에

요하다. 예를 들면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선교여행 등 선교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동공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후 선교지 신학교가 선교사로부터 현지인에게 리더십이 이양된 후에도 현지인 리더십이 공고하게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 말

선교지에서 “선교사 열 명보다도 현지인 지도자 한 명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다. 선교사가 아무리 특출하다 할지라도 선교지에서는 그 한 계층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산술적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며 사역에 힘써야 한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처럼 대중적 사역을 하되 초점은 가르칠만한 소수를 선발해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다. 역사는 다수의 대중들이 아닌 창조적 소수에 의해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 세계선교의 미래는 간성(干城)을 양성하는 현지 신학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벗고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지 나라와 역사 속에서 평가를 받게 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젊음을 송두리째 바치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부끄러운 판단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는가?

jsong007@hanmail.net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6)



나승희 집사
동양선교교회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깊은 밤 문득 잠이 깨었다가 어머니의 나즈막한 흐느낌 소리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그 울음소리에 얼마나 가슴이 아렸던지 내색은 못하고 자는 척 힘들다가 아침이면 몰래 가서 베개를 만져보았었다. 소리를 죽여 흘린 눈물에 베개는 축축이 젖어 있었다. 눈 빛만으로도 자녀들을 훈도하실 만큼 강인한 어머니께서 무엇이 그토록 아파하시는 것일까? 나는 궁금하면서도 감히 어머니께 묻지 못하였다.

처녀시절부터 13년간 교편을 잡으셨던 어머니는 참으로 엄중하고 배움은 높았으나 왠지 경제력을 지니지 못하셨던 아버지로 인하여 장남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어린 시동생들을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은 운동화를 기워 신으셨다. 그에 더하여 사남매를 키우시고 천성이 고고하신 아버지께서 뒤늦게 목회자의 소명을 받들도록 독려했으며 학업 뒷바라지와 개척목회와 농촌 목회의 동역을 하실 때 얼마

나 고초가 크셨으랴. 혹시 남의 눈에 필가 밤중에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목재소에 가서 불 지필 톱밥을 이어오고 김장질, 청과시장 뒤 안에서 내색은 못하고 자는 척 힘들다가 아침이면 몰래 가서 베개 만져보았었다. 소리를 죽여 흘린 눈물에 베개는 축축이 젖어 있었다. 눈 빛만으로도 자녀들을 훈도하실 만큼 강인한 어머니께서 무엇이 그토록 아파하시는 것일까? 나는 궁금하면서도 감히 어머니께 묻지 못하였다.

한국 문서선교회에서 펴낸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속에는 9분의 잊을 수 없는, 늘 불려도 또 부르고 싶은 신앙 선배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박종구 박사님, 변우량 박사님과 정희경 박사님의 어머니를 재외하면 다른 6분의 어머니들은 이미 자신들의 어릴 적에 혹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던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훈육하시고 양육하셨다. 그리고 주승중 목사님과 김성훈 선교사님

의 어머니 외의 다른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조선말기에서 일제치하 그리고 광복과 6.25동란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며 살아오신 나의 할머니 세대 분들이셨다. 나는 유교의 윤리와 기독교적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만나서 그들의 섬김과 나눔, 인내와 사랑으로 피어나 자녀들에게 값진 정신과 태도와 삶을 물려 주었는가 깊이 주목하며 보았다.

내 자신도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읽으며 때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비교해보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변화된 부모교육의 관점들과 미래를 향해 걷고 있는 나의 자녀들 또 그들이 낳을 손자녀들에게 필요한 어머니로서의 나는 어떠한 역할을 성찰해 보았다. 서책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홉 분의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부지런하셨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셨다. 정직하셨고 성실하셨으며 배움에 열정을 지녔으며 섬김을 실천하셨다. 그리고 감직함과 더불어 자녀를 향한 지극한 모성애를 지닌 분들이셨다.

1.4후퇴로 인해 서로 결별하게 되신 김건철 장로님의 어머니님과 아버님, 일찍이 청상과수가 되신 주선에 교수님의 어머니님은 고독한 삶을 신앙으로 이겨내시며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하셨던 분들이시다. 류태영 박사님의 어머니는 심심산골에서 가난 속에서도 부지런히 교회의 허드레 일들을 맡아 하시면서 자녀에게 항상 긍정적 말씀으로 (너는 무언가 될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등) 꿈을 갖게 하셨고 기적을 일구게 하셨다.

비슷하게 박종구 박사님 모친께서도 낙관적이고 미래지

향적 사고로 자녀를 자랑스러워하시며 기쁨으로 교육하신 바 그것이 박사님의 자부심과 자긍심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또 확신하건대 두 분 다 어린 시절부터 동네 심부름과 봉사를 통해 나눔을 가르치신 어머니 덕에 관계의 미학을 일찍 체득하셨다고 느껴진다.

변우량 박사님의 어머니님과 정희경 박사님의 어머니님은 선비정신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시다. ‘예’에 충실하셨고 온 몸으로 ‘불언지교’, 즉 실천하십시오로 자녀들을 교육하신 분들로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이셨다. 품위와 체통을 생명처럼 여기던 양반집안 자녀들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방관길에 멀치마구리를 이고 이집 저집 장사를 다니시면서도 강추위가 몰아치던 겨울, 교복이 안 말랐다고 투정부리며 도시락도 던져버리고 간 아들을 위해 부뚜막에서 교복을 말려서 발가락에 봉대를 감은 성치 않는 발로 8킬로를 뛰어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과 함께 교실에 두고 가시던 변 박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읽을 땐 절로 어머니날 노래에 입에서 흘러나왔다.

선비가문의 후손이셨던 정희경 박사님의 어머니도 박사님의 어린 시절 여성이 갖추어야 할 가사 일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신 엄격하신 분이셨으나 자녀들이 어려울 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신 깊은 사랑을 볼 수 있다. 하혈로 이불 속 방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음에도 오뎅이처럼 뚝뚝히 앉아서 바느질을 마친 뒤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등) 꿈을 갖게 하셨고 기적을 일구게 하셨다. 비슷하게 박종구 박사님 모친께서도 낙관적이고 미래지

자기 통제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가끔 책을 읽다가 돌아가 또 읽어보며 어머니 한 분 한 분을 새기던 중 그래도 9분의 어머니들 중 마음에 평안이 느껴져 온 두 분은 이성희 목사님의 모친되시는 설귀연 사모님과 주승중 목사님의 모친되시는 이정남 권사님이시다. 조상대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성실한 남편을 만나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셨고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두 분이라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순탄한 삶은 정녕 아니었을지라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기까지 부부가 함께 동고 하였고 이미 대물림을 받은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가족 간의 마찰이나 고충은 없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이 종교적 통일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 자신도 아직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그럼 이제 아홉 분 중에 한 분, 아직 언급하지 아니한 김성훈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계시다. 사실이 분을 가장 마지막으로 둔 것은 나의 어머니와 연령대가 제일 비슷하시다. 나의 어머니도 1930년대에 태어나셨다. 유년과 처녀시절에 예뻐한 감수성으로 글을 쓰신 것이나 자유분방함과 당당한 기질을 지니신 부분, 남편의 집안을 전도하는 맘머느리의 사명을 감당하신 부분, 늘 집안경제를 책임지셔야했던 부분, 남을 돕고 아픔을 나누는 일에 즐거우셨고 교회 세우고 돌보는 일에 속제하며 노는 손자녀들을 눈으로 살피며 딸이 되근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강인함과

님은 32년 전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홀로 지내시는 것이다. 고난이 많으셨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밝고 당당하셨다. 성경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집안 곳곳에 성경말씀이 붙어 있고 기다란 달력 뒷장들은 영낙 없이 성경말씀이나 찬송 가사를 써서 조상대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성실한 남편을 만나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셨고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두 분이라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순탄한 삶은 정녕 아니었을지라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기까지 부부가 함께 동고 하였고 이미 대물림을 받은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가족 간의 마찰이나 고충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 가면서 많은 지인들로부터 엄마 모습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듣는다. 정말 듣기 좋은 말이다. 늘 잡을 수 없는 거인처럼 내게는 큰 산이었던 어머니를 큰 바위 얼굴처럼 닮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딸이 나를 닮고 싶어 한다. 지금이 평범한 엄마가 자신에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닮고 싶고 보고 싶고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대물림을 하는 이 결정사...

이는 필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었기 때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바뀌는 그 모든 과정에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드린 귀하신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와는 모든 산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점은 현재 나의 어머니

중국가정교회의 상황: 과거, 현재, 미래 (1)

노봉린 박사

AGST Pacific하와이신학대학 학장, 전 OMF선교사(1970-2000)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전체 환자의 80%가 만성 흡연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미국에서 사망 원인 중 네 번째를 차지할 만큼 흔하지만 많은 경우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병이 진행될 때까지 환자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질환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승곡에 근무하는 60대 초반의 이 씨는 1년 전까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는 것을 느꼈고 아침에 조깅할 때는 한두 번씩 숨이 차서 쉬어야 했다. 또 감기에 걸리면 오랫동안 기침을 했고 기침할 때 노란 가래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지난겨울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서도 감기에 걸려서 한 달 이상 고생을 했다. 지난 겨울 철 감기 후에는 더욱 더 숨이 자주 차오는 것을 느꼈다. 이 씨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없었고 오래전에 한국에서 결핵을 앓았지만 완치된 후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담배는 20대 초반부터 피우기 시작해서 거의 40년 이상을 하루 한 갑 이상 피워왔다. 주위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충고를 자주 듣지만 아직 끊지 못했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이었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지만 요즘은 숨이 차서 운동량을 많이 줄였다. 검진상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고 혈중 산소농도는 94%로 감소되어 있었다. 폐 청진상 폐음이 현저하게 감소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다른 검진 상의 특이 사항은 없었다. 엑스선 검사에서 폐가 커져 있는 것이 보였고 폐 기능 검사 상 폐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이 발견되었다. 운동 부하 시 혈중 산소 농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발견되었다. 병력과 검사를 바탕으로 이 씨는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진

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 -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작은 기관지와 말단 부위가 손상되어서 인체 내 산소공급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원인은 만성흡연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가 이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고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되면 대표적인 원인 인자인 담배를 끊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폐질환의 치료 효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금연을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관지 확장제 등을 꾸준히 사용하면 폐기능을 최대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심한 폐질환 환자인 경우 폐기능이 10-20% 정도만 회복되어도 숨쉬기가 훨씬 나아져서 운동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치료는 기관지천식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치료가 효과적이다. 증상이 경한 경우는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운동할 때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가래가 나오는 등 폐질환의 정도가 중등도 일 때는 필요할 때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것 외에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야 한다.

심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경우는 숨이 차서 운동을 할 수 없거나 피곤하고 증상 악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가 반복적으로 필요하여 여러 종류의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를 평소에도 사용해야 한다. 또 흡입성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에는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호흡기 재활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폐질환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는 위의 치료 이외에도 집에서 꾸준히 산소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상이 매우 심한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한때 시행하던 폐 이식은 이식 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은 널리 시행되지 않는다. 심한 폐기종이 폐의 상엽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적 방법으로 폐기종이 심한 부위를 잘라내면 호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폐질환 치료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8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흡연을 계속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또 고단백질 위주의 식습관이 심한 폐쇄성폐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서론

모택동 주석이 중국을 27년간 (1949-1976) 다스린 후 덩소핑 주석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정권을 좌우하면서 중국 현대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래 동안 닫혀있던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중국경제가 부흥을 이루었고 종교자유주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화교교회 지도자들이 중국복음화운동을 열정적으로 일으킨 결과 중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가정교회가 5000만-6000만명이 되고 삼자교회는 2000만-3000만명이 된다는 로잔운동 동북아시아 통계가 나와 있는데 개신교인을 다 합하면 7000만-9000만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수는 남한과 북한의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하여 중국 가정교회의 과거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상태를 점검하며 미래의 가정교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지시하기를 원한다.

1. 과거의 중국가정교회

중국의 가정교회는 모택동 주석이 중국문화운동(1966-76) 때 정부에서 관할하는 삼자교회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은 불법단체로 간주하며 심하게 핍박하므로 가정교회운동이 시골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 가정교회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시골중심의 가정교회

북경, 상해 같은 큰 도시의 종교

라 도시가정교회 내에도 오순절 성령운동이 확산되었다.

2. 도시중심의 가정교회

덩소핑 주석의 1980년대의 현대화시대가 오면서 가정교회운동이 시골에서 도시로 옮겨지게 되었다. 1989년 6월4일에 북경에서 일어났던 Tianamen Square 반란사건 이후 많은 청년들이 중국의 자유화를 부르짖으며 종교자유를 도모하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많은 시골인들이 도시로 이주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가정교회운동이 도시화 되면서 많은 도시의 젊은 청년들이 각 곳에 가정교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이 도시 가정교회운동을 "신형도시교회"운동이라고 부른다.

도시가정교회의 특징은 대다수의

과거 가정교회는 시골, 도시, 정통적 등 3그룹으로 나뉘어

1980년대 시골에서 도시로 청년중심 "신형도시교회" 운동으로

인구를 합한 7500만명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천주교인 2200만명을 합하면 1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기독교인의 수가 중국공산당원 8500만명보다 더 많다는 충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종교자유로 기독교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2013년 말에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시진핑 주석 산하에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지도자들이 종교자유가 계속되기를 희망했으나 정반대로 기독교를 포함한 중국의 불교, 이슬람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2월 시진핑 주석이 그의 주석의 자리를 오래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종교단속법을 창조하면서 대대적인 기독교박박 운동이 전개되었다.

중국 가정교회 핍박이 심해지면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선교사를 포함한 많은 외국선교사를 추방하며 다방면으로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교회는 현재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활동은 중앙 중국종교위원회 (Religious Affairs Bureau)에서 직접 심하게 관리했으므로 도시의 종교 활동은 어려웠으나 시골의 종교 활동은 약 10-20명 소수가 모이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택동 주석의 반 기독교적 환란 속에서도 계속 교회활동을 유지하게 되었다. 가정교회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열매, 기도, 성경공부, 순수한 신앙, 영정적인 전도운동을 중심으로 오순절/카리스마틱한 신앙을 유지하였고 놀라운 교회 성장은 허나성, 원주, 안휘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 백개의 찬송가를 제작하여 시골가정교회에서 널리 사용하였다.

이러한 오순절운동은 1980년대 중국에서 사역한 Dennis Balcombs 선교사의 성령세례운동 집회를 통하여 강화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David Damien 목사가 "제3 카리스마틱 파도운동"(3rd Wave Charismatic Movement)을 중국교회에 소개하면서 홍콩과 대만에서 "집으로 돌아오라"(Hwei Jia) 대중집회(5000-30000명)를 인도한 결과 시골 가정교회뿐만 아니

교인들이 지식인으로 화이트칼라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목회자를 두고 교회조직체를 만들고 가정이나 오피스빌딩을 빌려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린다. 어떤 도시가정교회는 유럽의 Cathedral 타입 빌딩에서 예배를 드린다. 신학적으로는 시골가정교회의 오순절성령신학과 성경된 생활을 강조하는 알미니안 신학을 믿고 있으며 도시가정교회는 달리 개혁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중심의 교회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도시가정교회는 개신교의 교단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북경에서 10년 선교사역을 한 미국화교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내에 장로교가 구성되었고 복음화와 남노회도 생겼으며 개혁주의 침례교단도 구성되었다고 한다. 급속도로 도시가정교회가 성장하는 반면 많은 시골인들이 농촌에서 도회지로 이주하는 관계로 현재 시골가정교회가 계속 약화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

rohonolulu@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대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수, 목, 유, 일: 새벽: 오전 10:45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청당: 오후 1:00 수, 목, 유, 일: 오후 8:00 영, 위, 일: 새벽: 오전 10:45 주, 고등부예배: 오전 10:45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킬린뉴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시 수, 목, 유, 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영어로 보는 성경 (13)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1 Kings 9:3

The Lord said to him: I have heard the prayer and plea you have made before me;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which you have built,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WORD & IDIOM

* plea: 간청, 간구 * consecrate: 기념(축하)하다, 성별(聖別)하다. * built: build(짓다)의 p. pp

GRAMMAR

■ 1) The Lord said to him: I have heard the prayer and 주께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S) 들었다(V) 그 기도(O) 그리고 plea () you have made before me: 간구(O) 네가 만들었다(S+V) 내 앞에서 ⇒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네가 나에게 한 그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 have(has) + pp(과거분사)의 형식을 현재완료형이라 하며 완료, 경험, 계속, 현재의 상태 등을 나타낸다. have heard는 hear(듣다)의 현재완료형(have + pp)이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기도하며 간구한 내용을 들었으며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문장에서 무엇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내용, 곧 목적어(objective)는 the prayer and plea이다.

* have made 역시 현재완료형(have + pp)이다. () 뒤의 you have made는 그 자체로 보면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앞의 the prayer and plea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3형식(S+V+O)이 된다. () 안은 선행사 the prayer and plea를 받는 (목적어임을 알게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접속사 역할)를 겸한 대명사가 와야 하지만 보통 생략된다. ()이하는 앞의 목적어(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반드시 형용사 절이다. 해석은 ~한, ~인, ~은 ~는 등으로 한다.

Ex) I wrote about all the things (that) Jesus did and thought.

모든 것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주신 ⇒ 나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which you have built, 나는 성별하였다 이 성전(을) (그리고) 그것(을) 네게 건축하였다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내 이름을 넣음으로써 거기에 영원토록 ⇒ 나는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뒀으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 이 문장을 보면 선행사(this temple) 다음에 (.)를 찍고 나서 관계사 절이 이어진다. 이것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 하며 번역은 <그리고, 왜냐하면, ~이기 때문에, ~일지라도> 등을 넣어 계속 이어서 하면 된다. 위는 우리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한정적용법으로 번역을 한 것이다.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 which you have built를 계속적용법으로 번역하면 "나는 이 성전을 성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건축하였다" or "나는 이 성전을 성별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축을 한 것이다" 가 된다. 뒤의 전치사구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는 I have consecrated this temple를 수식한다.

* which you have built는 this temple과 by putting ~ 사이에 들어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이끄는 삽입절로 보는 것이 문장의 구조상 합리적이다. "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 그리고 그것은 네가 지은 것이다 -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뒀으므로" 우리말은 삽입절을 문장의 뒤에 두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나는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뒀으므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지은 것이다.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 나의 눈길과 마음이 늘 그곳에 있을 것이다.

* 조동사 will이 일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경우 -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할 작정이다, ~를(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STUDY & THOUGH

■ 기브온에서의 첫 번째 목시(3:5-15)의 성취를 경험한 솔로몬은 그의 성전 봉헌기도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기도에도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눈썹만이 아니라(8:29) 당신의 마음까지도 그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되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 God listened to all of Solomon's prayer. What are you asking for?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왕상10:8-9)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방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서 지혜를 듣더니 하나님을 송축하지는 것임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송축이라는 단어의 뜻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그 은혜 꼭 갚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찬양 드리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기뻐하시라"-하페츠-"마음이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그저 단순히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중심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기울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화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더니(왕상10:10-13)

성도의 진정한 복은 나의 귀중한 보배함을 열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다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습니까. 최고의 보물들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솔로몬왕은 왕의 규례대로 손님에게 주는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주고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더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을 주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시고 오히려 소원대로 넘치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 정금으로 입했으며(왕상10:14-18)

본문 14절부터 좀 더 깊이 생각해보야 하는 상황으로 급히 바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의 행동함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그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

목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왕상10:19-22)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이 자손대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책임 있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해 봉헌하고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았습

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왕상10:23-29)

솔로몬 왕은 천하의 왕들보다 지혜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과 함께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 세상 왕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복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산다

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왕상11:1)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도 함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타락해갔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해갔습니까? 눈앞에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부터 애굽과의 동맹을 위해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다윗성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고 별궁을 지어서 바로의 딸을 두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결국 빠져들어갑니다. 본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했는데 "아하브"는 "그 대상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소유하고 그 여인들에게 강한 열망을 보인 것입니다. 성도는 한눈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분으로 고정돼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영양예배: 오후 9:00 Tel. (02)977-8383-9, Fax. (02)977-8382 39-02-843-8676(교목관) (우)1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2-843-8676(교목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9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 (영양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0 (158-008)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1330-2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896-9298, Fax. 32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유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영주동 416-4(404-270)	승등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02)389-2235 (110-2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0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미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신협(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강북구 동소문동 49-45 (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628-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1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흥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디렉터 이영주 교수

“의료선교 함께 할 수 있는 인재 양성하는 학교 되길”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는 2019년 간호사를 위한 간호학사(RN-BSN)프로그램을 새롭게 오픈했다. RN-BSN 프로그램은 준학사(Associate Degree of Arts) 혹은 간호학학위과정(Diploma certificate in nersing)을 마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간호학과(Bachelor of

Science of Nursing)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 28일 기독교대학연합회(ABHE)로부터 간호학과 인가를 정식으로 받았으며 가을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간호과 수업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 간호학과 디렉터 이영주 교수를 만나 자세한 정보를 들었다.

이영주 교수는 “본 과정은 계속적인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간호사들에게 간호전문인으로서 발전하고 학문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건강간호 현장에서 간호관리자 혹은 간호행정자로서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쿼터제로 콤팩트 하게 학사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RN-BSN에 입학하려는 간호사들은 모두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다보니 학업에 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해서 학기제로 바꾸게 됐어요.”

본 프로그램에 영입된 교수는 4명이다. 한명은 필리핀계 임상 간호사(Nurse Practitioner)이고 3명은 한국에서 재직 중에 있다.

교과과정은 National League of Nursing의 academic progression model 과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에 근거한 간호학사 교육기준에 의거했다. 총 18개월(3학기)동안 1학기에 3과목(12학점)씩 이수해 총 3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가을학기 개강은 오는 8월 26일에 이어 봄학기 개강은 2020년 1월 27일에 하게 된다. 교육 후 진로는 다양한 건강간호 현장에서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도자적 인격을 겸비한 간호관리자 혹은 간호 행정가로 진출기회가 확대된다.

RN(Registered Nurse)을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RN 중에는 커뮤니티칼리지에 입학해 준학사(AA)를 취득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들도 많다. 응시자격은 준학사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준학사 취득 RN은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한다.

“RN은 간호사로서 리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RN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해마다 간호사들을 평가하게 될 때 학사학위가 없어 승진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RN들이 일반 병원에 취업해 경험을 쌓으며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대, 2019년 가을학기 RN-BSN 프로그램 시작 준학사 RN에 저렴한 학비로 기회 제공, I-20비자 발급

현재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을 위한 RN-BS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칼리지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저희학교와 같이 RN-BSN을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많아 웨이팅리스트(waiting list)를 작성하고 입학 가능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WMU의 RN-BSN은 이러한 분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영주 교수는 RN-BSN 프로그램 입학조건은 간호학 준

학사, 미국 RN 자격증 소지, 평점 2.0이상인 자라 언급했다. 또한 WMU가 유학생을 위한 I-20를 발행하는 학교인 만큼 이에 해당되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유학비자 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언어가 불편한 자들은 본교가 운영하고 있는 ESL프로그램을 통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UCLA의 경우 기본적으로 I E L T S (아 이 엘 츠),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진학과 이민을 위한 영어능력 평

가시험) 6.0, 말하기(speaking) 7.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SC를 비롯한 영어권 학교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간호사로 활동하려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저희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RN이시기에 언어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입학하게 될 때는 ESL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 교수는 WMU가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기에 향후 방학에 개설되는 ESL은 기존의 수업 외에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 의학부부가 첨가된 수업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 교수는 WMU 간호학과는 다분히 간호학 학사취득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닌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간호학과인

출석하며 10년 동안 의료선교를 해왔으며 코이카해외봉사단(Koika)에서 간호봉사단 파견 교육책임자로 활동했다. 그는 WMU에서도 여름방학시즌 때 의료선교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간호사들이 헌신적이며 어느 병원에서든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이영주 교수는 WMU가 신학과 상담과 그리고 간호학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하며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간호학 학사(BSN)와 석사(MSN) 프로그램 개설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며 이를 위해 인력충원, 실습실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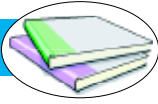
오는 가을학기부터 시작되는 RN-BSN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타주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입학금(300달러)이 면제된다.

이영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대부속병원에서 3년, 신한대학교에서 22년간 재직했으며, 신한대 재직당시 코이카에서 컨설턴트로 4년간 활동하고 UCLA 교환교수로 1년반 재직했다. RN 라이선스는 87년 취득했다.

가족으로는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과 슬하에 두 자녀(포모나 하버머드 엔지니어링 3학년, 산타 모니카에 있는 고등학교 9학년)가 있다.

〈박준호 기자〉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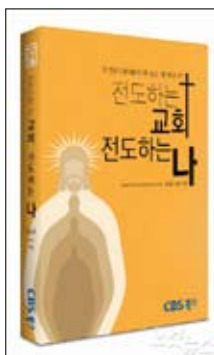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

저자 유성국 목사

남다른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유성국 목사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을 추십니다”라는 부제를 단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CBS 북스)를 출간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대부분은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5%미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만 95% 사람들은 전도를 해 본적이 없다는 말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전도가 힘든 이유를 1)영혼구원의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 2)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 3)훈련을 받지 못함으로 4)너무 바빠서 5)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영혼



구원 이 힘들다 6) 불모텔이 없으면 전도가 힘들다...”(본문 중)며 이러한 문제

원을 이루어 드리고 △한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 간절함 △전도의 다양성 제시 △전도의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주지 위함이라고 수록했다.

본서는 총 13개의 섹션으로 구분돼 ‘왜 전도하나 1, 2부’, ‘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을 추십니다’ 부제 달아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바탕으로 상세히 제시했다.

또한 저자는 서문을 통해 책 출간의 목적을 △하나님의 소

전도가 힘든 이유’, ‘복음의 내용’, ‘전도의 6단계 1, 2부’, ‘전도를 더욱 잘하려면 1, 2부’, ‘전도하는 교회세우기’, ‘반론에 대처하기’, ‘가족 전도하기’, ‘타종

교인 및 이단 전도하기’, ‘전도와 비전’ 등으로 구분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유성국 목사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그러다 1979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 대학교 시절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됐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1987년부터 2년간의 OM선교사역을 마친 뒤

현재는 Gospel-To-All Evangelism Center를 통해 전도훈련, 전도 자료 공급(영어, 한국어, 스페니시, 중국어, 일어, 캄보디아어, 인도 타밀어, 인도 카나리아어), 교회와 선교사 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ABC 교육구에서 교육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아내와 네 딸을 두고 있다.

유성국 목사의 관한 자세한 것은 www.gospeltall.com에서 볼 수 있으며 책 구입은 세리토스에 소재한 북음사나 저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 (562)802-7728. samyoo2024@gmail.com

〈이성자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